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메이지시대 華裔 일본 외교관의 활동과 정치적 입장

— 鄭永寧·鄭永昌·鄭永邦 삼부자를 중심으로 —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종 수 정

메이지시대 華裔 일본 외교관의 활동과 정치적 입장

— 鄭永寧·鄭永昌·鄭永邦 삼부자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박 훈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종 수 정

종수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7월

위 원 장 _____

부 위 원 장 _____

위 원 _____

국문초록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8-1912) 재일(在日) 화예(華裔)와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화예 외교관의 활동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메이지시대 초반에는 정영녕(鄭永寧), 히라이 기쇼(平井希昌)를 위시한 에도 시대 당통사(唐通事)를 역임했던 화예 외교관들이 나타나 일본의 대청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중국 혈통을 보유한 일본인이라는 '경계인'의 신분을 토대로 순조롭게 외교관이 될 수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메이지 시대 화예 출신 외교관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활동했다고 평가받는 정영녕과 그의 두 아들인 정영창(鄭永昌)과 정영방(鄭永邦)의 활동과 더불어 그들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우선 본고에서는 정영녕의 외교관으로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그의 생애 만년에 일어났던 '매국문 사건(賣國文事件)'의 경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영녕은 「청일수호조규」 체결 예비 교섭부터 조규 체결, 소에지마 사절단 수행, 동치제 알현, 류큐 귀속 문제의 대응과 정보 전달 등에 관여하며 청일협상의 최일선에 서서 양국의 교섭을 매개했다. 당시 정영녕은 중국 혈통을 보유한 일본인이라는 '경계인'적인 신분을 통해 청일간의 교섭에서 일본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1890년대 청일간의 관계에 긴장감이 감돌면서 정영녕의 이러한 '경계인'적인 신분은 그의 신변을 위협하는 요소로 돌변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 정영녕의 '경계인'적인 신분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사회의 경계심은 소위 '매국문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정영녕이 언론에 의해 매국노로 매도된 모습을 통해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정영녕에게 제기된 매국문 관련 혐의는 사실무근이라는 점에서 정영녕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입장에 선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정영녕의 장남 정영창의 활동과 관련해 외교관으로서의 활동과 염운 사업가로서의 활동이라는 두 가지 면모를 위주로 서술했다. 정영창은 주천진 영사를 역임하던 시기 일본 외무성의 요구에 따라 천진 조계지

부지 선정 및 천진 조계지 설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기도 했다. 사실상 통역관에 가까웠던 부친 정영녕에 비해, 정영창은 일본 정부의 외교관으로 진일보한 것이었다. 정영창은 외교관 퇴임 이후 해북염운회사(海北鹽運會社) 및 한국염운회사(韓國鹽運會社)를 운영하며 염운 사업가로 변모하기도 했다. 한편 본고에서는 정영창의 염운회사 설립 과정 및 식염 수입을 위한 청 정부와의 교섭 과정에서, 정영창과 일본정부 요인들과의 긴밀한 교류가 이뤄진 정황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한다면 정영창이 외교관 퇴임 이후 신속하게 식염 무역상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정영창이 일본정부에 충실한 외교관이었다는 배경이 존재했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영녕의 차남인 정영방과 관련해서는 주북경공사관에서 30년간 재임하는 동안 맡았던 여러 외교사무에 대한 단편적인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사료상의 한계로 인해 정영방의 외교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했던 시점에 조선으로 파견된 정영방이 원세개와 접촉해 일본의 입장들 중 하나를 제시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청일 양국이 조선출병과 관련해 상호간의 의중을 살피는 과정에서 정영방이 청 측으로 하여금 일본의 의도를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던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외교관으로서의 면모 뿐만 아니라 정영방이 일본의 첫 북경관화 교재인『관화지남(官話指南)』을 편찬했던 점 등과 연관지어 살펴본다면 정영방 또한 그의 부친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국익에 충실했던 외교관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고를 통해서는 비록 정씨 부자가 중국 혈통을 보유한 일본인 즉 청일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들의 정치적인 입장은 시종일관 일본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였으며 그들은 철저히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였다고 판단해볼 수 있다.

주요어: 정영녕(鄭永寧), 정영창(鄭永昌), 정영방(鄭永邦), 당통사(唐通事), 화예(華裔), 화인, 외교과, 매국문사건, 경계인

학 번: 2017-23020

목 차

국문초록

머리말 ····· 1

제1장 鄭永寧의 대청 교섭 활동과 '賣國文事件' ····· 7

제1절 1870-80년대 일본의 대청 외교 교섭과 정영녕의 활동 ····· 7

제2절 '경계인' 정영녕과 1891년 '매국문 사건'의 진상 ····· 19

제2장 鄭永昌의 외교 활동과 염운사업 ····· 29

제1절 주천진 영사 정영창과 천진의 일본 조계 ····· 29

제2절 정영창의 염운사업 추진과 실패 ····· 35

제3장 鄭永邦의 외교 활동과 북경어 교육 ····· 45

맺음말 ····· 53

참고문헌 ····· 56

[부록] 명예훼손, 손해, 배상, 미래의 손해 ····· 60

日文要旨 ····· 63

머리말

재일(在日) 화예(華裔)[1]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연구에서는 화예 상인들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인 반면 화예 외교관의 활동은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화예 외교관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원인으로는 근대 일본에서 화예가 정치에 참여해 외교관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8-1912) 초반에는 정영녕(鄭永寧), 히라이 기쇼(平井希昌), 하야시 미치사부로(林道三郎)를 위시한 당통사 출신 화예 외교관들이 나타났다.

당통사(唐通事)는 일본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68) 나가사키 무역에서 중일 상무 관련 업무와 통역 등에 종사하던 자들로, 대외무역에서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비록 나가사키 이외의 사쓰마번(薩摩藩), 시마바라번(島原藩) 및 그 당시 일본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류큐에도 당통사가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당통사라고 하면 보통 나가사키 당통사를 지칭한다. 당통사에 대한 연구서를 살펴보면 에도시대 당통사에 관해서는 방대한 연구 성과가 있다. 그러나 1867년 당통사 제도가 와해된 후 당통사 출신자에 관한 연구는 막말기에서 메이지시대 초기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데[2], 주로

---

1) 본고에서 華裔는 명대에 중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하여 그곳에 정착한 한인의 후손을 가리킨다.

2) 許海華,「舊長崎唐通事與近代日本對華交涉」,『浙江外國語學院學報』, 2015.02, pp.91-97; 高橋裕子,「旧長崎唐通事が明治初期に果たした役割—マリア・ルス号事件を通じて—」, 杏林大学大学院国際協力研究科, 『大学院論文集(13)』, 2016.03; 李斗石・王慧杰,「幕末至明治初唐通事對日本外交翻譯的貢獻」,『集美大學學報(哲社版)』, 2018.01, pp.108-114; 岡本真希子,「越境する唐通事の後裔・鉅鹿家の軌跡—対外戦争と植民地統治のなかの通訳—」,『青山史学(38)』, 2020.03.16, pp73-85; 沈丁心,「明治維新期における唐通事の歴史的役割」, 北京外國語大學(日語語言文化전공 석사 학위 논문), 2015.04.02. 이 논문들은 전체적으로 鄭永寧 平井希昌 林道三郎 등 화예 외교관들이 외교 교섭에서 활동했다는

개별 당통사의 궤적을 검토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언어교육 및 언어학습 활동에 관해 분석했다.[3)]

메이지시대에 접어들면서 당통사 체계가 도쿠가와 막부의 붕괴와 함께 와해된 후, 일부 당통사는 다른 직종으로 전업하였고, 일부 당통사는 메이지 정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메이지 정부에서 일하는 당통사들은 대다수가 통역 및 언어 교육에 종사하게 되었다. 메이지시대의 구(舊) 당통사[4)]에 대해 연구한 李鬥石・王慧杰은 메이지시대에 들어서면서 구 당통사가 적극적으로 영어를 학습하며 메이지 정부의 외국어(한어 및 영어) 통역관으로서 메이지 초기의 외교 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서술했다.[5)] 또한 沈丁心는 메이지시대 구 당통사들의 신분 전환을 외교관, 실업가, 외국어 교육자의 세 가지로 나누어 파악하고, 구 당통사들이 메이지시대에 여러 영역에서 일본의 근대화 추진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6)]

한편 당시 메이지 정부의 외무성은 청나라와 무역할 때에 한어를 통역할 인원이 필요하여 1870년에 한어를 가르치는 한어학소(漢語學所)[7)]를 설치했

모습을 언급했다. 한편 張天恩,「江華島事件をめぐる交渉日清--清末外交の二重性をめぐって--」,『ソシオサイエンス(25)』, 2019.03, pp.31-50에서 또한 정영녕을 언급하였다.

3) 六角恒廣,「唐通事と唐話教育」,『早稲田商学(292)』, 1981.12. pp.455-477. 中嶋幹起,「唐通事の担った初期中国語教育-南京官話から北京官話へ」,『東京外国語大学史-独立百周年(建学百二十六年)記念』, 1999. pp.855-911. 平井洋,『維新への澪標--通詞平井希昌の生涯』, 新人物往来社, 1997; 六角恆広,「潁川重寛--唐通事から漢語教師へ」,『漢語師家伝』, 東方書店, 1999, pp.1-48; 許海華,「長崎唐通事何禮之の英語習得」,『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紀要(44)』, 2011.04, pp.297-318 高芳,「唐通事與日本近代漢語教育」,『東亞漢學研究(2)』, 2012. pp.143-155; 등은 구 당통사들의 통역이나 언어교육 영역에 관련한 책 및 논문이다.

4) 본고에서의 구(舊) 당통사는 메이지시대에 활동한 옛 당통사 및 그 가족 등을 가리킨다.

5) 李斗石・王慧杰(2018), p.112.

6) 沈丁心(2015), p.28.

7) 中嶋幹起(1999), pp.856-857, p.869에 따르면 원래 에도시대에 나가사키에서 사용된 한어로는 '남경어(南京話), 복주어(福州話), 장주어(漳州話)'의 총 세 종류

다. 외무성은 총 9명의 한어교사를 임명했는데 가장 먼저 임명한 한어교사가 바로 구 당통사로서 메이지 정부에 대역관(大譯官)으로 임명된 정영녕이다. 『日本外交文書』[8]에 수록된 1868년~1894년 사이의 내용에서도 빈번이 정영녕의 이름을 살펴볼 수 있을 만큼, 정영녕은 메이지시대 외교 교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통역사였다.

정영녕은 뛰어난 한어 실력을 인정받아 야나기하라 사키미쓰(柳原前光), 다테 무네나리(伊達宗城),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청나라 파견을 수행하는 등 통역관・서기관으로 활동했다. 정영녕은 1871년에 「청일수호조규」 체결의 전 과정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야나기하라와 다테 등 대신을 따라 청나라로 가서 교섭에 참석했다. 그러던 중 1874년 11월~1876년 1월 주북경일본공사관의 임시대리공사를 맡으면서 성공적으로 당통사에서 외교관으로 변모하였다.

앞서 許海華(2015)는 1868년~1888년 동안 도합 23명의 당통사 본인 또는 그 일가가 외무성에서 재직했던 직위를 정리했다. 23명 중에 穎川씨는 穎川重寬, 穎川永太郎, 穎川高淸, 穎川君平로 총 4명이고, 鄭씨는 鄭永寧, 鄭永昌, 鄭永邦로 총 3명, 吳씨는 吳碩, 吳啟太, 吳大五郎로 총 3명이었다. 이 세 가족 중 정씨 부자가 중국과 가장 많이 접촉하고 또한 중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인물들이었다.

당통사에서 외교관으로 변신한 정영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정영창과 정영방[9]도 외교관의 길을 걸었다. 이처럼 정씨 부자는 중국 혈통을 보유한

의 방언이 있었다. 세 방언 중에 남경어가 다른 두 방언보다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공통어나 표준어의 지위에 있었다. 당통사들에게 남경어는 표준어이며, 남경어만 할 수 있으면 중국에서 온 상인들과의 교류에 별 지장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청일수호조규」를 맺은 이후 1876년 일본 외무성은 북경어 습득을 위해 처음으로 청나라에 유학생을 보냈다.

8) 일본 외무성 소장 문서에서 주요 문서를 선정 발간한 외교 사료집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간행된 것은 서명 위에 '대(大)'자가 붙어 있다.

9) 정영녕에게는 친아들인 정영창과 정영방 이외에도 정영경(鄭永慶)이라는 양자가 있었다.

일본인이라는 '경계인'의 신분을 토대로 순조롭게 외교관이 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영녕은 그의 생애 말년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사건과 마주했다. 이른바 '매국문 사건'으로 오랫동안 외교 교섭을 해 왔던 정영녕이 청국의 일본 주재 공사였던 이경방(李經芳)에게 매국문을 바쳤다는 혐의가 제기된 것이었다. 許海華(2019)는 '매국문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룬 유일한 논문으로, 청일교섭에서 통역관 및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정영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해당 논문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인 1891년도의 사료가 아니라 1918년의 『大阪每日新聞(朝刊)』에 기재된 기사를 사용했으며, 『大阪每日新聞(朝刊)』의 기사에 따라 '매국문 사건'을 '국적(國賊)사건'이라고 칭했다. 본고에서는 해당 사건을 1891년 사건 발생 당시의 기사에 나타난 표현에 따라 '매국문 사건'이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許海華의 논문에서는 정영녕과 청 측 관원들이 접촉할 때 보여준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사건이 사실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10] 앞서 언급하였듯이 비록 정영녕은 만년에 '매국문 사건'을 겪었지만, 아들 정영창과 정영방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메이지 정부의 외교관으로 기용되었다. '매국문 사건'이 사실이었다면 정영창과 정영방이 계속 외교관으로 중용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영녕과 그의 두 아들인 정영창과 정영방의 활동과 그들의 정치적 입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1장에서는 『對支回顧錄』[11]과 『日本外交文書』를 중심으로 1870-80년대 일본 정부의 대청 교섭 중에서

---

10) 許海華, 「論鄭永寧與近代中日關係」, 『日語學習與研究』, 2019(2)

11) 『對支回顧錄』은 동아동문회(東亞同文會)가 1934년부터 편찬하였으며, 상하(上下) 두 권이 있다. 상권은 메이지 초년부터 만주사변까지 중일 간 일어난 중대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 하권은 대중국교섭 공로자들의 열전이다. 이 책을 편찬할 때 일본 외무성, 육군성, 참모본부, 주중국일본대사관 등의 도움을 받았다. 동아동문회는 1898년부터 1946년까지 존재했던 아시아주의단체를 가리킨다. 이후 상해에 설립된 동아시아 동문서원(同文書院)의 전신이며 또한 지금의 하산회(霞山会)의 전신이기도 하다. 이 기관은 중국에서 공개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기 전 일본의 중국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문화 침략 연구에 대한 반(半) 공식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이었다.

정영녕이 어떠한 외교적 활동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영녕이 만년에 겪은 소위 '매국문 사건'과 관련해, 기존 연구에서 등한시된『朝日新聞』,『朝野新聞』,『大審院判決錄』 등의 사료를 이용해서 '매국문 사건'의 경위와 진상을 밝히려고 한다.

정영녕의 장남 정영창은 일본 주천진 일등영사(一等領事)를 역임했으며 일본의 천진 조계지 설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12] 정영창은 1902년에 일등영사직을 사임하고 중국인 유악(劉鶚)과 함께 염운회사를 창립하여 한・중・일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했다. 정영창과 관련된 선행 연구[13]에서 그가 염운회사를 설립한 사실을 언급한 바가 있으나, 주로 유악을 중심으로 서술하여 정영창 개인의 역할을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다. 따라서 2장에서는『대지회고록』을 이용해서 정영창의 일생을 정리하면서,『在支帝国専管居留地関係雑件／天津之部』와『清季中日韓關係史料』를 바탕으로 정영창이 외교관으로서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천진조계 설립과 상인으로서 창립한 염운회사(鹽運會社)를 살펴봄으로써 정영창의 정치적인 태도 및 염운회사・일본 정부와의 관련 여부를 아울러 분석하고자 한다.

차남 정영방은 일본 주 북경 공사관의 이등영사를 역임했으며, 청일전쟁 발발 때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 1889년~1890년, 1893년~1894년에 조선으로 파견되기도 했다. 정영방과 관련된 사료는『대지회고록』의 일부 내용을 제외하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료적 한계로 인해, 정영방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 또한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14] 이에 3장에서는

---

12) 靳佳萍・萬魯建,「試論鄭永昌與天津日租界的設立與經營--基於日本外交檔案的考察」,『歷史教學747』, 2016. pp.54-59

13) 정영창이 언급된 선행연구로는 張利民,「劃定天津日日租界的中日交涉」,『歷史檔案』, 2004.01. pp.74-80; 中下正治,「国聞報と鄭永昌領事(日中関係史-2-)」,『季刊現代中國』, 1973.03. pp.4-16; 茅海建・鄭匡民,「日本政府對于戊戌變法的觀察與反應」,『歷史研究』, 2004.03. pp.54-109, 191; 吳振清,「劉鶚致禍原因考辯」,『南開學報』, 2001.01.30. pp.91-96; 劉素芬,「劉鶚罹禍原因再探」,『揚州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18.05. pp.80-92; 劉素芬,「晚清條約體制下的鹽務交涉與中韓貿易」,『地域文化研究』, 2018.02. pp.20-38.

14) 정영방과 관련된 기존 연구로는 강문호,「東學農民革命과 袁世凱」,『동학연구』,

『대지회고록』에 기록된 정영방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서, 정영방의 외교 활동을 서술하는 동시에 정영방과 원세개의 접촉을 개괄적으로나마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북경어 교육 서적 출판을 위시한 활동 또한 검토하고자 한다.

2005.03, pp.19-50 등 원세개와 동학농민운동을 다룬 논문에서 정영방을 언급한 정도를 거론할 수 있다.

제1장 鄭永寧의 대청 교섭 활동과 '賣國文事件'

제1절 1870-80년대 일본의 대청 외교 교섭과 정영녕의 활동

『대지회고록』의 기록을 토대로, 정영녕의 이력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15] 우선 정영녕은 본디 오(呉)씨였으며, 오씨의 본적은 복건성(福建省) 천주부(泉州府) 진강현(晋江県)이다. 그 선조인 오일관(呉一官)이 명청교체기의 국난을 피하기 위해 일본으로 귀화하여 나가사키에 정착한 후 대대로 통사로 활동하였다. 오일관의 8대손은 오용장(呉用藏)으로, 오용장의 아들 6명은 '오가의 육준(六駿)'이라고 불릴 만큼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16] 정영녕은 오용장의 6번째 아들로 1829년 9월 8일에 출생했다. 본명은 우주로(右十郎)였고, 성인이 되어 정간보(鄭幹輔, 1811~1860)의 양자가 된 후에 정영녕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정씨 가문은 정지룡(鄭芝龍)과 일본인 다가와 시치자에몬(田川七左衛門)의 딸 다가와 마쓰(田川マツ)의 후예로 대대로 막부의 역사(訳司)를 맡았다.[17] 정간보는 和學과 漢學에 모두 정통하여 당시 나가사키에서 '정 선생님(鄭先生)'으로 유명했다. 정간보는 1836년에 소통사조(小通事助)로 승진하였으며, 1837년에서 1840년까지 자비로 에도에 있는 昌平坂學問所에서 공부했다. 졸업 후 나가사키로 돌아가 복직했으며 1844년에는 소통사(小通事)로 승진했다. 1853년경에 정간보는 막부의 지시를 받아 만주어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1859년 정간보는 나가사키 봉행(奉行)의 허락을 받아 미국인 선교사 맥고완

---

15) 東亜同文会編,『對支回顧錄(하)』, 原書房, 1968, pp.32-36.
16) 『對支回顧錄(하)』, p.32.
17) 中嶋幹起(1999), p.872.

(Daniel Jerome Macgowan, 1814-1893)에게 영어를 배웠다.[18]

정영녕은 정씨의 7대손으로서 가업을 계승하여 당통사(唐通事)가 되었다. 메이지시대에 접어들어 당통사 체계가 와해되면서 정영녕은 메이지 원년(1868) 사월[19] 나가사키부 광운관(広運館)[20]의 통역으로 임명되었다. 1869년 이월 도쿄에 불려가 외국관 일등 역관이 되었다. 칠월에 외무성이 설립된 후에는 대역관(大訳官)으로 승진했다. 팔월에 사할린으로 출장을 다녀온 후 1870년 사월에 귀임하여 문서권정(文書権正)으로 임명되었다. 칠월 청국에 출장하라는 명령을 받으며 비로소 청일 교섭의 첫 걸음을 떼었다.

1870년, 정영녕은 이듬해의「청일수호조규」체결을 앞두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처음으로 청국에 파견되었다. 정영녕은 외무대승 야나기하라 사키미쓰(柳原前光)를 수행하여 상해를 거쳐 천진에 도착한 후, 직예총독(直隷總督) 이홍장을 통해 청일 조규 체결에 대한 의중을 살폈다. 마침 당시에는 폭도들이 프랑스 영사를 때려죽이고 천주교당을 소각한 이른바 '천진교안' 사건이 발발했다. 당시 이홍장은 칙명에 따라 프랑스 측과 교섭하는 가운데,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의도에서 일본과의 조약체결에 대해 긍정적인 의중을 비쳤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대지회고록』에서는 '무조약국이 아무런 공식 자격 없이 이처럼 미묘한 비공식 교섭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영녕의 숙달된 한어 덕분이었다'[21]라고 평가했다. 같은 해 시월 정영녕은 일본으로 돌아갔다.

1871년 오월 정영녕은 흠차전권대신(欽差全權大臣) 다테 무네나리(伊達宗

---

18) 李鬥石,『閩籍唐通事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9. pp.207-210.

19) 본고에서 음력 날짜는 모두 한글로 표현한다.

20) 광운관(広運館) : 막말기 1858년 칠월 영어통사(英語通詞)를 양성하기 위해 영어전습소(英語伝習所)를 설치했으며, 양학소(洋学所)⇒어학소(語学所)⇒제미관(済美館)으로 개칭했다. 1868년 메이지정부가 접수하여 나가사키부(府) 관할 광운관이 되어, 외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서양의 학문도 가르치기 시작했다. 1871년 광운관이 나가사키부에서 문부성으로 이관되었다. 학제(学制) 발포 후 외국어학교가 되었다. 몇 번의 개칭을 거쳐 1874년 4월 다른 외국어학교와 합병하여 나가사키 외국어학교가 되었다가 1877년 12월에 폐지되었다.

21)『對支回顧錄(하)』, p.33.

城), 대승(大丞) 야나기하라 사키미쓰를 수행하는 입청의약사참판(入淸議約使參判)으로 임명되어 다시 청국으로 파견되었다. 유월에 북경에 도착한 정영녕 일행은 당시 이홍장이 전권대신으로 임명되었기에 천진에 내려가 교섭하였다. 그들은 팔월에 「청일수호조규」을 체결하고 구월 귀국했다.

1872년 이월 정영녕은 외무소기(外務少記)로 임명되어 세 번째로 청국에 파견되었다. 정영녕은 주어진 업무를 마무리하고 천진에서 일본으로 가는 도중 상해에 체류하였는데, 당시 초대 상해 영사 시나가와 다다미치(品川忠道)가 일본에 일시귀국 중이었으므로 그가 시나가와 영사의 부재중 대리로 임명되었다. 이 때 마침 청국 노동자를 실은 페루 기선 마리아 루스(The Maria Luz Case)호가 요코하마에서 소에지마 외무경, 오에 다쿠(大江卓) 가나가와 현령의 명령으로 억류된 사건[22]이 발생했다. 이에 정영녕은 상부의 명령을 받고 이를 이홍장에게 통보했다. 정영녕은 상해 영사 대리를 마치고 청국 이민수령특사(移民受領特使) 진복훈(陳福勳)과 함께 1872년 구월에 일본으로 귀국하였다. 일본에 돌아간 정영녕은 외무경의 명령을 받들어 야나기하라 대승과 함께 진복훈의 접대를 맡았다. 진복훈의 일본 견문을 보조하고 그에게 류큐 사신의 조근(朝覲) 현황을 보여주기도 했다. 앞서 高橋裕子는 상술한 '마리아 루스호 사건' 해결 과정과 사후 처리에는 林道三郎, 何幸五, 平井希昌, 鄭永寧 4명의 구 당통사가 참여했다고 하였다. 그 처리 과정 중 청국과

22) 마리아 루스호 사건은 高橋裕子(2016), pp.8-9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마리아 루스호 사건(The Maria Luz Case)은 1872년 7월 포르투갈령 마카오에서 중국인 노동자 231명을 실은 페루 범선 마리아 루스호가 귀국 도중에 파손 수리를 위해 요코하마(横浜)에 기항하였을 때 선박 내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중국인 1명이 밤중에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만에 정박 중인 영국 군함에 구조를 요청한 사건이다. 영국선으로부터 인도받은 일본 정부는 조사결과 마리아 루스호를 노예선으로 보고, 그 선박의 출항을 금지하고 가나가와(神奈川)현 청사에 재판소를 설치하여 선장을 소추, 유죄를 선고하고 선박 내의 중국인 전원을 풀어주었다. 페루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조치를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양국 간의 분쟁으로 이어져, 다음 해 협상 결과 중재계약이 체결되어 러시아 황제를 재판관으로 하는 국제 재판에 의뢰하기로 합의되었다. 이 재판에서 러시아 황제는 1875년 6월에 일본 측의 조치가 일반국제법이나 조약에도 위반되지 않는 타당한 것이었다는 판결을 내렸다.

가장 깊이 관련된 일본 측 인물은 정영녕으로, 청 측과의 교섭은 정영녕이 거의 도맡았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23]

1873년 양력 2월 정영녕은 이등서기관(二等書記官)에 임명되어 특명전권대사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 외무경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3월 12일 정영녕은 소에지마 대사와 함께 군함에 탑승하여 3월 말 상해에 도착했다. 정영녕은 상해에서 대사와 헤어진 후 야나기하라 대승과 함께 천진으로 향하여 전반적인 준비를 마쳤다. 대사 일행이 천진에 도착한 후 정영녕은 대사와 함께 이홍장과의 협상을 주선하였다. 4월 30일「청일수호조규」비준서 교환이 진행되었다. 한편 소에지마 대사의 또 다른 임무는 동치제(同治帝)의 친정(親政)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이에 5월 정영녕과 대사 일행은 북경에 가서 야나기하라 대승과 총리아문을 방문하여 대사의 황제 알현 절차와 기한 등을 정하는 교섭을 개시하였다. 당시의 교섭은 바로 '소에지마 대사가 청국 황제를 알현할 때의 의례 문제(副島大使謁帝儀禮問題)'[24]에 대한 것이었다. 청국 측은 황제를 알현할 때 삼궤구고(三跪九磕, 무릎 꿇고 세 번 머리를 땅에 닿도록 절하는 것을 3회 반복하는 예)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일본 측은 삼읍(三揖,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리는 동작을 세 번 하는 예)의 의례를 주장했다. 쌍방은 수십 회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정하지 못했다. 끝내 6월 20일에 정영녕은 야나기하라 대승과 함께 총리아문으로 가서 청 측이 요구한 황제 알현 시의 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거절했다.[25]

이튿날인 21일 소에지마가 야나기하라와 정영녕을 보내 마카오와 조선의 귀속 문제와 더불어 1871년 대만 생번(生蕃)이 류큐 표류민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총리아문에 문의했다. 이러한 일본 측의 외교적 동향은 청 측의 입장에서 예상 밖의 사건이었다. 6월 21일 밤 이홍장은 손사달(孫士達)을 보내 정

---

23) 高橋裕子(2016), p.14.

24) 白春岩,「1873年における清國皇帝への謁見問題--李鴻章と副島種臣との外交交渉--」,『ソシオサイエンス(16)』, 2010.03. pp.49-64.

25) 白春岩 (2010), pp.52-53.

영녕에게 일본의 의중을 타진했다. 손사달은 정영녕에게 “일본 사절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황제 알현의 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인가? 만약 일본이 만족할 정도로 논의가 이뤄져서 마침내 알현을 하게 해주면 생번 문죄의 주장은 어쩌면 가라앉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이에 정영녕은 “귀국한 후 반드시 문죄하는 거사가 있을 것이다. 어찌 배알을 하고 안 하고에 관계가 있겠는가?”라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26)]

한편 청국 황제의 알현 의례 문제에 대해 청 측에서는 타협을 청하였다. 1873년 6월 29일 정영녕은 국서를 받들고 대사를 수행하여 동치제를 알현하면서 대사의 하송(賀頌)을 번역해서 전달했다. 결국 소에지마는 의사를 관철하여 삼읍(三揖)의 의례로 청국 황제를 알현했다.[27)] 삼읍의 의례를 받아들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소에지마 대사 일행은 7월 6일 북경을 떠났다. 천진에서 일본으로 떠날 때 이홍장은 성대한 의례로 소에지마 대사 일행을 환송했다. 『대지회고록』은 이에 대해 ‘이를 통해 정영녕이 어떻게 이홍장과 소에지마 대사 사이에서 착오 없이 그들의 뜻을 전했는지 알 수가 있다’[28)]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1874년 3월 정영녕이 일등서기관(一等書記官)으로 임명되었고 야나기하라 대승이 초대공사로서 북경에 부임하자 정영녕도 청국에서 재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5월 일본의 대만 출병이 진행되자, 정영녕은 야나기하라 공사와 동행해 상해와 천진에서 일본의 대만 출병에 관한 담판을 개시하였다. 일본 국내의 군인들이 야나기하라 공사를 격려한 데다가, 일본 측에서는 대만 번민이 ‘화외(化外)의 백성’이라고 인식하며 이것을 출병의 빌미로 삼았기 때문에, 야나기하라 대사와 정영녕은 이번 담판에서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그

---

26) 「柳原鄭両書記官清国総理衙門官員ト応接書」, 国立公文書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A03030996800
“日本使節此論ヲ起ハ觀見ノ議成熟セサルニ由レルカ、若シ其意ニ満ルホドノ儀ヲ成シ遂ニ謁見ヲ為サシメハ生蕃問罪ノ説或ハ寝スヘシ” “帰後必問罪ノ舉アルヘシ何ソ拜謁ノ有無ニ構ラン”

27) 白春岩 (2010), p.54.

28) 『對支回顧錄(하)』, p.34.

러나 청국도 담판에서 일본이 요구하는 보상금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이에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내무경(內務卿)은 스스로 전권판리대신(全權辦理大臣)이 되어, 영국 주청국 공사 토머스 프랜시스 웨이드(Thomas Francis Wade)[29]의 개입 하에 10월 31일에 「북경전약(北京專約)」을 체결했다. 해당 약조를 통해 청국은 일본에 은 50만 냥의 보상금(撫恤銀)을 지불하는 한편, 일본의 대만 출병이 의전(義戰)이라는 것을 청 측으로부터 인정받으며 사태를 매듭지었다. 11월 야나기하라 공사가 귀국하자 정영녕은 대리공사에 임명되어, 약 1년 2개월 동안 대리공사로 재직했다. 1876년 1월 모리 아리노리(森有禮)가 공사에 부임함에 따라 대리공사 직위를 내려놓았다.

한편 1875년 3월 21일 임시 대리 주청일본국공사인 정영녕은 영국 공사관 부서기생 메요루(Mayor, メヨル)로부터 류큐 사절이 북경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했다.[30] 3월 24일 정영녕은 총리아문을 방문해 공친왕(恭親王), 모창희(毛昶熙), 숭후(崇厚) 등과 류큐 사절 입경에 대한 담판을 진행했다. 정영녕은 류큐가 일본의 번속이라는 점에서, 류큐 관련 사안에서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류큐는 이미 우리나라(일본-인용자)의 번병(藩屛)이므로 이번에 예공(例貢)을 위해 귀국(청국-인용자)에 왔다고 해도 류큐의 번왕은 우리 본국에 명을 청해야 할 터이고 또한 우리 본국으로부터 귀국에 주북경공사를 두는 것도 류큐번에 반포한 이상은 류큐번은 물론 내경(來京)의 사신으로부터 우리 공사관에 대해 문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아울러 숙고하건대 만에 하나 류큐번이 이 일을 우리 본국에 알리지 않고 올지도 모르고 만약 스스로 감히 파견했다면 즉 이군(二君)을 섬기는 것이니 굉장히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다. 우리 본국은 보지 못하

29) 토머스 프랜시스 웨이드: 영국의 외교관으로 상하이 초대 세무관, 홍콩무역감독관의 한문비서관 등을 지냈고 애로호 사건 때 천진에서 강화교섭을 담당하였다. 북경 주재 영국공사를 역임하였고 즈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웨이드식 로마자 표기법을 창안하였다.

30) 外務省調査部編, 「琉球貢使入清に付鄭臨時代理公使與総署往復事略」, 日本国際協会, 『大日本外交文書(8)』, 1938-1940, p.298.

고 알지 못할 때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본서가 여기에 있으니 어찌 묵시할 수 있으랴.[31)]

그러나 쌍방은 당시 담판에서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정영녕은 일본 외무성의 지시에 따라 류큐 문제로 인한 청과의 정면충돌을 피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정영녕과 북경 공사관의 표면적인 침묵을 통해, 메이지 정부는 류큐 처분 추진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해 9월 조선에서 운요호 사건이 발생하자, 외무경 데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는 각국에 주재한 자국 공사들에게 사건의 경위를 알렸다. 이에 정영녕은 주 청국 대리공사로서 청국 총리아문에 알려주며 청국에 주재한 각국 공사의 반응을 포착하고, 이것을 데라시마 무네노리에 보고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서 정영녕과 각국 공사들의 대화를 알 수 있다.

각 공사의 오조(口気)는, "조선(彼)이 이미 포문을 열어 죄를 얻었으므로 귀국(일본-인용자, 이하 동일) 정부는 즉시 이를 따져 물을 명분이 있으며, 실로 능히 일거에 개통의 공적을 세우면 구미의 배가 장래에 조선에 이르더라도 혜택(賜)을 얻음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무릇 종래 주경(駐京) 각국 공사는 청 정부가 한국을 설득하여(說韓) 개국하도록 넌지시 권했지만(諷勸) 아직 (조선이) 듣지 않아 지금 이렇게 쟁단(啓衅)이 있다"고 들었으며, "이 죄를 물어 나라를 여는 것은 마땅히 일본의 의무에 해당한다"는 등 크게 우리를 부추기려는 뜻이 보였기 때문에, (정영녕은) "우리 해군은 저 나라(조선)의 근해를 측량할 때 우연히 포격을 당해 부득이하게 위와 같은 상황에 차츰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

31) 「琉球貢使入清に付鄭臨時代理公使與総署往復事略」, p.299.
"抑琉球は既に我國の藩屏たれは今度例貢の為め貴國に来ると雖も該藩王は我本國へ命を請ふ筈且我本國より貴國へ駐京公使を被差置候義も該藩へ頒布相成居候上は該藩は勿論来京の使臣より我公使館へ對し一問候を通せさるの理無し旁勘考するに萬一該藩此事を我か本國へ不告して来るも難計若し自ら欺て派使せしならは則ち二君に事ると申者にて甚不相濟事なり我本國不見不知の時は兎に角現在本署爰に居なから豈黙視するを得んや"

후 우리 정부에서 결국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아직 명확한 보고(明報)를 받지 못했다"고 답해 두었습니다.[32]

이를 통해서 정영녕은 구미 각국 공사들과의 교섭을 매우 원활하게 진행했으며, '근해를 측량'하려던 것이라는 일본의 주장을 주청국 각국 공사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1876년 1월 모리 아리노리(森有礼)가 북경 공사관 공사로 부임하여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담판을 개시하자, 정영녕은 북경과 보정(保定) 사이를 왕래하며 이홍장과의 협의에 진력하였다. 1879년 7월 정영녕은 외무성 권대서기관(権大書記官)으로 임명되고 일본으로 귀국했다.

정영녕은 귀국한 지 2년 뒤 1881년 6월 4일 외무성에 사표를 냈다. 정영녕은 사표에서 "저희 부자가 이렇게 깊은 은혜를 받는 것은 세상에서 흔하지는 않으며 매우 감사하다[33]"고 하였다. 이 사표에서 정영녕은 외무성에 근무하면서 국사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입장을 선명하게 표현했다. 당시 일본 사법부는 법전을 편찬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마침 재야에 있던 정영녕을 1881년 12월 사법성 어용괘(御用掛)로 임명하였다. 정영녕은 『大淸會典』의 훈점(訓點) 감독 업무를 맡아, 법전 편찬을 위한 재료를 꼼꼼히 완비하여 제공하기도 했다.

『대지회고록』은 1881년 정영녕이 사임한 이유를 상사와 의견이 맞지 않았

---

32) 外務省調査部編,「江華島事件ノ報知ニ接シ淸國總理衙門ニ通知セル旨竝ニ淸國駐劄各國公使ノ所說等報告ノ件」, 日本国際協会, 『大日本外交文書(8)』, 1938-1940, p.137.
"各公使之口気は彼既に砲を開き罪を得たれは貴國政府は即ち之を問ふの名有り誠に能一挙以て開通之功を収めは歐米之將來朝鮮に到るも其賜を受る多々と申し蓋し従来駐京各國公使は淸政府より説韓開國候様諷勸候得共未た聴入さるを以て今此啓衅有るを聞き此罪を問ひ國を開くは正に日本之義務に當れり抔と大に我を唆動する意相見へ候故我海軍は彼國近海測量之際偶砲撃に遭ひ不得止右次第に及候儀と推量候尤此後我政府於て到底所議如何未得明報と答置候右奉覆並卽事附聞候也"

33) 太政官,「権大書記官鄭永寧免官ノ件」, 明治14年. https://www.digital.archives.go.jp/item/3650182

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34] 일본 외무대신의 재임 기간을 보면 당시 정영녕의 상사가 누구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1879년 7월 당시의 외무경[35] 데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는 정영녕을 권대서기관(権大書記官)으로 임명하면서 귀국을 명령하였다.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1879년 9월 10일부터 1887년 9월 16일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외무대신을 겸임할 때까지 외무대신을 역임했다. 따라서 당시 정영녕의 상사는 바로 이노우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정영녕이 1885년 재기용되었을 때도 외무대신은 여전히 이노우에였다. 또한 일개 권대서기관이 외무대신을 상대로 독자적인 의견을 고집할 수는 없었다고 본다. 따라서 정영녕이 그만둔 직접적인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상사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관직을 그만두었다는 『대지회고록』의 서술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다.

사법성에서 근무 중이던 1885년 2월 정영녕은 외무성에 다시 기용되어 외무권대서기관 직위를 회복했고 특파전권대사(特派全權大使)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수행하여 청국으로 출장갔다. 이때의 출장은 전년(1884)에 있었던 갑신정변을 둘러싼 담판을 위해 정영녕을 특별히 기용하여 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토 전권대사 일행은 4월 북경에 도착한 후 천진으로 내려가 이홍장과 담판을 개시했다. 양자 간 회의는 7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몇 차례 격어(激語)를 주고받기도 했지만, 결국 양측은 4월 17일 천진조약을 체결했다. 이때 정영녕의 장남 정영창은 서기생으로 천진영사관에 재임하고 있었으며 차남 정영방은 공사관의 어용괘(御用掛)로서 북경에 있었다. 천진조약 협의와 관련된 일곱 차례의 회담 가운데 두 번째 회의는 차남인 장영방이 통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천진 회담은 정영녕이 공직 생활 중에 마지막으로 맡은 봉공(奉公) 업무로, 이후 그는 귀국하여 남은 업무를 정리했다. 그 후 1885년 12월 허직(虛職)이 되었고 이듬해인 1886년 1월에는 사법성 어용

---

34) 『對支回顧錄(하)』, p.35.

35) 1869년 외무성 처음 생길 때부터 1885년까지는 태정관(太政官)제도 하에 외무부의 대신은 ○○경(卿)이라고 불렀다. 1885년 내각제도로 변경하면서 외무경에서 외무대신으로 바꿨다.

괘(御用掛)도 사직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외무성에서도 사임했다.

사임하고 나서 정영녕은 정육위훈오등(正六位勳五等)의 훈상을 받아 고우지마치코(麴町區) 히라카와초우(平河町)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여 말년을 보내다가, 1897년 7월 29일에 병사했다. 정영녕은 생전 정육위에 서위되었고 시호는 관량원자덕영녕거사(寬量院慈德永寧居士)라고 하여 우에노(上野) 야나카(谷中)의 묘지에 안장되었다.

『대지회고록』에서는 정영녕에 대해 "정영녕은 대외 교섭을 부할 때 어조가 자유자재하고, 도량이 넓어서 반드시 남을 설득시킨다. 그가 참가했던 담판은 거의 모두 국가가 관련된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는 매우 훌륭하게 소에지마, 오쿠보, 이토 등의 뜻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라고 평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정영방은 일본 측에서 통역가 및 외교관으로서 상당한 인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 측 입장에서 볼 때, 정영녕은 다른 일본 관원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중국 관료 오여륜(吳汝綸)의 일기 기록이다. 1870년 9월 9일에 오여륜 일행은 천진 기창양행(旗昌洋行)에 가서 야나기하라 사절단 구성원 5명을 회견했는데, 이 중에는 정영녕도 포함되어 있었다. 오여륜은 자신의 일기에서 야나기하라 등 3명의 구성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으며,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만 언급했다. 하지만 5인 가운데 지위가 높지 않은 정영녕에 대해서는 "그는 한어도 할 수 있고, 명나라 때 도피하여 일본으로 갔으며 정지룡(鄭芝龍)의 후예라고 한다"라고 기록했다. 또한 오여륜은 정영녕과의 대화에서 일본의 지리와 정치 상황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고 기록하기도 했다.[36]

상술한 사례를 통해 청 측 관료들의 입장에서 정영녕은 중국계 후손이라는 친연성과 더불어 한어와 한문으로 직접 표현할 수 있어 소통이 편리했다는 점에서, 비교적 거부감이 적은 교섭 상대였다고 할 수 있다.[37] 따라서 청

---

36) 吳汝綸, 『桐城吳先生日記(上)』, 河北教育出版社, 1999, pp.390-392.

37) 한편 1876년 12월에 정영녕이 禮部右侍郎 潘祖蔭에게 서한 한 통과 『상고도록(尚古圖錄)』을 주었던 사례도 존재한다.

측에서는 정영녕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가지기도 했고, 심지어 요행을 바라기도 했으며 정영녕이 청조를 위해 적극적으로 발언해주기를 바라기도 했다. 일례로 『李鴻章全集』에 수록된 1876년 1월 24일 이홍장과 모리 아리노리·정영녕 간에 진행된 회담의 상황이 있다. 이 회담에서 청일 양측은 조선과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을 때, 이홍장과 모리가 논쟁이 있을 때 이홍장은 "모리 대인은 젊은 나이에 혈기가 왕성하여 이런 잘못된 논리를 내놓았다. 정서사는 우리의 조약을 맺을 때 있었던 사람이니, 정서사가 모리에게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38]고 했다. 이를 통해 이홍장이 정영녕을 정서사(鄭署使)라고 칭했고, 정영녕을 통해서 강경한 태도를 가진 모리 아리노리가 설복당하기를 희망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정영녕은 모리 아리노리에 비해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이러한 태도는 담판 양측의 대립 정서를 완화하기 위한 교섭의 수단에 불과했으며, 결국 이홍장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처럼 정영녕은 화예 출신이기는 했으나 본질적으로는 일본을 대표하는 외교관의 역할을 맡았다. 오여륜과 이홍장 등 측 관원들이 정영녕에게 친근감을 느낀 원인은 바로 정영녕의 혈통이 중국계라는 점이었다. 즉 청 측 관원들은 정영녕을 중국 혈통을 보유한 일본인, 즉 청일 양국 사이의 '경계인'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정영녕도 청국 관원의 이런 관점을 이용하여, 본인은 정씨의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청 측 관원에게 본인이 '정지룡의 후예'라고 칭했다. 말하자면 정영녕은 청 측 관원에 의도적으로 본인의 혈통이 중국계라는 사실을 노출하였으며, 그 목적은 일본 측 혹은 본인에 대한 호감을 유도하여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것에 있었다.

그렇다면 정영녕 스스로도 본인을 청일 양국 사이의 '경계인'이라고 생각하였을까? 정영녕은 흥아회(興亞會)[39]의 회원이었으며, 1880년 5월 14일의

---

38) 李鴻章, 「日本使臣森有禮署使鄭永寧來直隷督署內晤談節略」, 『李鴻章全集(31)』, 安徽教育出版社, 2007. pp.339-342.
"答云森大人年少氣盛, 發此謬論. 鄭署使是我們立約時的人, 須要詳細告他."

39) 흥아회는 1880년 曾根俊虎 등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류큐 처분과 임오군란 등으로 청일 관계가 악화되어 가는 가운데 양국의 제휴를 표방하여 최초

『흥아회보고(興亞會報告)』에는 그의 연설 장면이 담겨있다. 연설에서 정영녕은 직접 명나라의 유신으로서의 자기인식을 드러냈으며, 남경어의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40] 이를 통해서 정영녕이 본인의 중국 혈통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를 과시하기도 하였으나, 그가 생각한 '중국'은 당시의 중국을 대표하는 청나라가 아니라 명나라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영녕은 청나라를 자신이 혈통을 받은 '중국'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한 증거로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정영녕이 10월 5일에 자신이 소장한 조선 연행사의 일기인 『연사일록(燕槎日錄)』을 육군성에 헌납한 것을 들 수 있다. 당시 정영녕은 육군성 차관(次官) 고다마 겐타로(兒玉源太郎)에게 『연사일록』을 바쳤을 때 "(『연사일록』은) 한인(韓人)들이 연경(燕京)에 가는 도중에 기록한 것이며, 내용이 상세하여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준비해서 헌납해드린다"라고 했다.[41] 정영녕은 조선 연행사의 일지를 육군성에 헌납하여, 일본군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영녕이 일본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그의 일본 정부에 대한 지지 태도를 명확히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청일 양국의 이익과 관련된 사건이 있을 때 정영녕은 시종 일본 정부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사실을 다양한 사료를 통해 살펴보

의 아시아주의 단체로 여겨지고 있다. 청일 제휴를 위해 한어 기관지 발행과 어학교육에 힘썼다. 이후 아시아협회로 개칭하였고, 동아동문회가 설립되자 여기에 합류하였다.

40) 中嶋幹起(1999), pp.875-876. 당시 일본에서 북경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나 아직 북경어를 관용어로서 인식하지 않았다.

41) 防衛省防衛研究所, 「鄭永寧より燕搓日録献納の件」,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6021750500
"右は韓仗入燕之道中記錄極精細に相見え目下御用に可適書に付獻納仕度此段奉願候也"
한편 夫馬進, 「日本現存朝鮮燕行録解題」, 『京都大學文學部研究紀要』, 2003(42), pp.127-238에서 현재 일본에서 소장 중인 『연차일록』(pp.205-210)은 두 부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필자는 그중 하나가 정영녕이 당시 헌납한 것일 수 있다고 추측한다.

았다. 이렇듯 정영녕이 청나라가 아닌 '중국' 명나라의 유신으로서만 남았다면, 그는 어떠한 이유로 청나라에게 '매국문'을 바쳤다는 혐의를 받은 것인가? 다음 2절에서는 '매국문 사건'에 대해 서술하면서, 정영녕의 정치적인 태도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제2절 '경계인' 정영녕과 1891년 '매국문 사건'의 진상

앞서 정영녕의 대청 교섭 중의 활동을 토대로, 비록 정영녕이 중국 혈통을 보유한 일본인이라는 '경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입장은 시종일관 일본 정부의 입장과 일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그가 화예라는 이유로 그의 정치적 경향을 의심하는 일도 있었다. 상술한 정영녕의『연사일록』헌납 사건 또한 이러한 일본 내부의 의심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새로운 사료를 토대로 정영녕 생애 말년에 있었던 소위 '매국문 사건'의 경위와 진상을 밝힘으로써, 정영녕의 정치적 태도를 다시 고찰해보기로 한다.

1886년 정영녕은 외무권대서기관(外務權大書記官) 직위에서 사임한 뒤 국가 외교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5년 뒤인 1891년 3월 8일『일본』신문[42]에서는 정영녕이 당시의 공사이자 이홍장의 양자인 이경방에게 "일본은 군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으며, 중국의 무비는 이처럼 강대하여 지금 일본

---

42) 1888년 창간된 일간지『도쿄전보(東京電報)』의 후신으로 일본신문사에서 발행되었다.『일본』은 1889년 2월 11일부터 1914년 12월 31일까지 있던 일간 신문. 그 후 1925년 오가와 헤이키치(小川平吉)에 의해『일본신문』으로 재창간, 1935년까지 10년에 걸쳐 일본주의를 주장하는 신문으로 출판되었다. 사장 겸 주필로는 陸羯南이 취임했는데, 陸羯南는 과도한 구화주의를 싫어하고 국권의 신장을 주창하는 국민주의자로서『新聞停止法』에 의해 자주 책망받아 1888년부터 1897년까지 22회, 총 131일 간의 발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심지어 1903년에도 요인에 대한 풍자로 발매금지 당했다. 논조는 반관료(反官僚), 반번벌(反藩閥), 국수보존(国粋保存), 대외강경, 청일전쟁 개전을 주장했다.

을 토벌하지 않으면 재난이 생기게 될 것이다"라는 건의를 했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43] 다년간 대중국교섭에 종사해온 외교관이 함부로 청에 건의까지 바쳤으며 심지어 상대방이 일본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도록 선동하기까지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여론은 들끓었다.[44] 정영녕의 오랜 동료인 요 소노지(陽其二)[45]조차 의심을 금할 수 없다고 기록하기도 했다.[46]

이와 같은 소위 '매국문 사건'의 전말은 당시의 신문 보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1891년 3월 8일『일본』신문이 정영녕 매국문 사건을 보도하자. 3월 13일의『아사히신문(朝日新聞)』과 4월 9일의『조야신문(朝野新聞)』도 사건과 관련된 후속 보도를 진행했다. 1891년 3월 13일의『아사히신문』에「정모패행일건(鄭某悖行一件)」,「정모 매국난신의 시말(鄭某賣國亂臣の始末)」그리고「일본신문의 변호인(日本新聞の辯護人)」이라는 제목으로 세 편의 보도가 있었다. 이 세 편의 보도 내용은 주로 사건의 소개, 그리고 정영녕의 변호인 모리야 고노스케(守屋此助)[47]가『아사히신문』에 보낸 편지의 "정영녕이『일본』신문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었기에『일본』신문을 고소하겠다"라는 내용을 공개했다.

---

43) 1차 사료인『日本』은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国賊弁護(2)—鄭永寧事件—」,『大阪毎日新聞(朝刊)』, 1918.04.27.에 실린 정영녕의 변호인에 대한 취재 기사를 참고하였다.

44)『아사히신문』메이지 24년 3월 13일 금요일, 1885호 정영녕 매국문 사건의 보도를 따르면 사람들이 기사를 읽고 모든 비분강개 하여, 정영녕도 역신, 나라를 배신하는 간도로 부르게 되었다. 또한 사람들은 정영녕이 죄가 너무 커서 죽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45) 요 소노지(陽其二)는 당통사출신이고『요코하마신문』의 창립자, 막부 해군관료이다.

46) 1891년 3월, 요 소노지(陽其二)가 다카시마 가에몬(高島嘉右衛門)에게 정영녕의 국적 혐의의 진위를 가리는 점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다카시마의 점복 결과는 '뢰수해(雷水解)'이라서 괘상적으로 정영녕 청국과 내통한다는 혐의를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편파적인 신문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밝혔다. 이는 그만큼 당시의『일본』신문의 보도는 여론에 영향이 컸다는 것을 보여줬다.

47) 守屋此助 (1861-1931)는 중의원 의원, 요코하마시(横浜市) 의회 의장, 가미나카(神中) 철도(현재의 사가미(相模) 철도) 사장이다. 모리야는 도쿄법학교(현 法政大学)를 졸업한 후 요코하마시에서 변호사 회사를 개업했다.

또한 1891년 4월 9일의 『조야신문』 해당 보도에서 『조야신문』의 사원은 『일본』 신문에 기재된 매국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인 "운도생(云濤生)의 친구가 청국공사관을 방문했을 때 정영녕이 응접실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 후에 정영녕은 공사와 손을 잡고 별실로 들어갔다"라는 내용을 읽고서, 운도생의 친구라는 사람은 바로 누마타 마사노부(沼田正宣)[48]라고 추측했다. 이에 『조야신문』은 누마타를 취재했는데, 당시 누마타는 공사관에서 우연히 정영녕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조야신문』은 비록 이 매국문이 도대체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알 수 없으나, 누마타가 이 사건의 관계자라면 그의 필적과 매국문의 필적을 비교하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때 누마타의 친구인 아무개[某某]는 신문을 보고 매국문의 필적을 통해서 이 글의 투고자가 바로 누마타라고 의심하였으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마타를 힐문했다. 누마타의 친구는 "지금 당장 이 일을 당신이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당신을 감싸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진짜 이 글의 투고자라면 얼른 자백하라"라고 하였다. 이에 누마타도 각종 증거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숨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결국 정영녕이 쓴 매국문을 『일본』 신문에 투고한 운도생은 바로 본인이라는 것을 지인 앞에서 인정했다.

한편 정영녕에게는 오태수(吳泰壽)라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는 당시 오사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일본』 신문의 정영녕 매국문 사건의 보도를 보고 몹시 놀라며 도쿄에 와서 정영녕에게 사건의 진위를 물어본 후에 어떻게든 먼저 누마타의 필적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교롭게도 오태수는 상해에 있을 때 누마타와 면식이 있었고, 누마타 또한 상해에 있을 때 청국과의 무역 관련 내용이 기록된 수첩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따라서 오태수는 수첩을 빌리기 위해 누마타를 방문했으나 누마타는 수첩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하여 수첩을 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떠나기 직전 오태수는 자신이 정영녕의 조카라는 사실과 그 수첩을 빌려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자, 누마타는 경

48) 沼田正宣은 『日淸貿易經驗事情』, 『日淸貿易新說』, 『日淸貿易針砭』 등 책의 저자이다.

악하는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이후 오태수는 오사카로 돌아간 후 누마타가 보내온 서신을 모아 정영녕에게 보냈다. 정영녕의 변호인은 이 서신을『일본』신문에 투서한 매국문과 비교하여 바로 같은 필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누마타는 지인에게 이미 본인이 운도생의 명의를 이용하여『일본』신문에 정영녕이 쓴 매국문을 투고한 것을 자백하였다. 정영녕의 변호인 오카무라 데루히코(岡村輝彦)가 진상을 밝히려고 하는데 증거가 없어서 고심하고 있을 때, 누마타의 지인이 누마타의 자백을 오카무라에게 전하면서 누마타가 오카무라의 앞에서 자백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영녕은 매국문을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누마타가 투고한 매국문은 대체 누구 손으로 만들어졌을까? 이에 1891년 4월 3일 오카무라는 누마타를 심문했다. 이때 누마타는 본인이 바로 매국문의 투고자라고 자백하였으나 기안한 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오카무라는 더욱 엄격하게 누마타에게 질문했으며 누마타는 매국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2월 11일 누마타는 청국 공사관에 갔다가 도대균(淘大均)[49]을 만나서 한담을 나누던 도중, 도대균이 보여준 글을 보고 흥미로워 잠시 빌려오려 했는데, 당시 도대균이 "이 글은 극비이므로 세상에 공개할 수 없으며, 내가 이것을 너에게 빌려주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말라"고 했고, 도대균으로부터 빌린 글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복사했다고 진술했다. 다음날인 2월 12일 누마타는 자신이 저술한『日淸貿易経験事情』에 관한 수첩을 들고 다시 청국공사관으로 향했고, 매국문(즉 앞서 도대균으로부터 빌린 문서)을 수첩 속에 끼워 넣은 채로 도대균에게 돌려줬다고 했다. 누마타는 매국문의 복사본을 2월 23일까지 몰래 간직하고 있다가 같은 날에 공사관으로 유경분(劉慶汾)을 방문했을 때 응접실에 들어서자 정영녕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고 전했다. 이때 누마타는 정영녕이 이경방 공사에게 이 매국문을 맡긴 것

49)『조야신문』에서 淘大均라고 나왔는데 실은 陶大均이다. 도대균은(1858-1910) 회계(현재의 浙江紹興)인이며, 14살 때 관비로 일본에 가서 일본어를 배우려 유학을 했고 청국의 일본어 통역관이 되었다.

은 사욕을 위해 국가의 이익을 팔아먹은 것이라는 생각에 분노해서 결국에 3월 6일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매국문을『일본』신문에 보냈다고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누마타는 도대균이 정직한 사람이고 그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오카무라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오카무라는 결국 도대균에게 가서 상황의 진위를 물었다. 이에 대해 도대균은 경악한 기색으로 "절대 없는 일이다. 누마타와 친하게 이야기한 적도 없었다. 매국문 같이 청나라에 유익하고 일본인의 감정을 아프게 할 것을 어떻게 그에게 빌려줄 수 있는가?"라고 부인했다. 이에 오카무라는 답을 얻기 위해 누마타에게 도대균과의 대질 심문을 요청했다.

1891년 4월 4일 오카무라를 비롯한 변호인들은 누마타와 동행하여 청국공사관을 찾아가 참찬관 여증상(呂增祥), 통역관 도대균, 영사 유경분 그리고 정영녕 앞에서 대질 심문을 진행했다. 일단 누마타는 매국문과 관련해, 2월 11일 즉 정월 3일에 도대균으로부터 빌린 것이고 그 원고의 앞부분에 '鄭某'라고 적혀있어서 당연히 정영녕이 쓴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누마타는 '鄭某'가 바로 정영녕이라는 것은 명백하지 않다고 진술했다. 다만 최근 정영녕이 공사관에서 어학 교사로 근무하고 대우도 좋았으며, 어학 교사에 불과한 정영녕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청국공사에게 매국문을 보내 공사의 환심을 사려 했다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누마타는 매우 증오하여 바로 3월 8일『일본』신문에 정영녕 매국문 사건을 투서했고, 다음날인 3월 9일 원고와 자신이『日淸貿易経驗事情』을 공사관에 가져가 함께 도대균에 돌려주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도대균은 누마타와 단 한 번도 친하게 지낸 적이 없으며, 기밀문서를 보여주거나 빌려준 일은 절대 없다며 누마타의 진술을 부정하였다. 또한 도대균은 누마타가 공사관으로 온 날이 2월 11일 즉 정월 3일이며, 그날 자신은 공사를 따라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공사관으로 돌아왔으니 누마타에게 직접 문서를 건네줄 시간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 다음 날에는 누마타가 다시 공사관으로 와서 자신과 면담하기는 했으나 마침 구로다(黑田)라는 부인이 공사관에 내방할 때였으므로 공사관이 아주 복잡했다고

진술했고, 따라서 그에게 직접 문서를 건네준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누마타가 한 달 전에 매국문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도 이상한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누마타는 답변하지 못하다가, 한참 후에『일본』신문에 매국문 기사가 보도된 다음 날 도대균이 자신의 집을 방문했으나, 마침 자신과 부인이 집에 없어서 하인만 만나고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렸으나 끝내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누마타는 그날 있었던 도대균의 방문에 대해, 본디 청조의 예절에서는 집주인이 집에 없을 때 기다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데, 도대균이 몇 시간동안 집에서 자신을 기다렸던 것은 아마도『일본』신문에 보도된 매국문 기사와 관련된 일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대균은『일본』신문의 보도에, 운도생의 친구가 공사관을 방문했을 때 정영녕이 공사의 손을 잡으면서 별실에 들어갔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영녕이 이날 공사관에 방문한 사람은 누마타였으니 누마타를 조사하면 운도생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이에 따라 자신이 다름 아니라 정영녕 변호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려는 목적에서 누마타의 집을 그 날 방문했던 것이라 진술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조야신문』의 해당 기사는 매국문의 기안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누마타가 투고자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술한『일본』신문의 보도로 인해 정영녕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을 때, 아키야마 데이스케(秋山定輔)[50]는 변호인 모리야 고노스케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에 모리야 고노스케와 요코하마 전 지방 법원장 오카무라 데루히코(岡村輝彦) 두 사람은 정영녕의 법적 대리인으로서『일본』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도쿄항소원에 고발했다. 당시 소송의 경위와 결과에 대해『대지회고록』에서는 "정영녕 군은 이를 법정에 고소하여 익명의 제보자를 적발하고 명예를 회복했다. 이로 인해 정영녕의 충성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라고 기록했다.[51] 반면 1918년 4월 27일『大阪每日新聞(朝刊)』은 모리야를 취재했

50) 秋山定輔 (1868-1950) 岡山縣 출신의 정치가・기업인・중의원 의원・『二六新報』 사장.

는데, 당시 모리야의 말에 의하면 사건이 진전되어 소송이 대심원에서 미야기 항소원으로 넘어갔으나 별다른 판결 없이 흐지부지 종결되었다고 한다. 얼마 후 청일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소문이 항간에 떠돌면서, 정영녕의 '매국문 사건'은 완전히 잊혔다고 전해진다.[52]

이러한 명예훼손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당시의 소송자료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1심이 실려있어야 할『도쿄항소원재판록(東京控訴院裁判錄)』은 1895년 이후 기록만 남아 있어서 정영녕 소송의 재판문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대심원판결록(大審院判決錄)』 메이지 25년 9월 29일자, 刑553호의「誹毀사건공소에 부대된 私訴의 건」에 실린 2심의 내용을 통해 당시 진행된 소송의 경위와 결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53]

판결문에서는 "위 당사자 간의 명예훼손 사건 공소에 부대하는 사소(私訴)의 항소에 대하여, 메이지 25년 3월 12일 도쿄 항소원에서 심리한 끝에 본건 항소인이 청구하는 것은 후일 지불하고자 하려는 광고의 비용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손해로서 현재 발생할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항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죄로부터 발생할 직접적인 손해라고 해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사소(私訴)로써 이것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인의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정해진 절차(定式)를 이행한 바 상고 대리인 모리야 고노스케(守屋此助)는 상고의 취지를 부연하고, 또한 원재판에서 상고인이 피고 등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통해 1심에서 피상고인 즉『일본』은 정영녕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신문광고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내

---

51)『対支回顧録(하)』, p.35.

52)「国賊弁護(2)—鄭永寧事件—」

53) 大審院,「誹毀事件公訴ニ附帯スル私訴ノ件」,『大審院判決録:民事・刑事(明治25年自9月至10月, 同年自11月至1月)』, 中央大学, 1912. pp.612-616. https://dl.ndl.go.jp/info:ndljp/pid/794806/1
해당 사료의 번역은「부록-1」을 참고.

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정영녕은 위 재판을 부당하다고 보고 상고했다. 그 요지는 원판결에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신문 광고료는 아직 지불하지 않았기에 청구권이 없다는 판결 요지를 내려 상고인의 청구를 거절한 것은 민사소송법에 소위 법률에 위배되어 사실을 확정하는 불법의 재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재판 전부 파훼(破毁)를 요구한다고 한다”를 통해서 2심이 진행된 이유는 정영녕의 명예회복을 위한 신문지 광고비 지불을 요구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마쓰노 신지로(松野新次郎)에 대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상고는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를 통해 사건에 참여한 마쓰노 신지로에 대해 원판결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리하자면 정영녕은 명예훼손으로 도쿄항소원에『일본』신문을 고소했고, 그 결과 피고인『일본』신문으로 인하여 정영녕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영녕이 대심원에 2심을 청구한 것은 미래의 손해로 인한 신문 광고료 청구 때문이었다. 정영녕은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신문 광고료 비용 문제까지도 승소했으며, 이는 곧『일본』신문이 보도한 ‘매국문 사건’은 거짓이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한편 상술한 소송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신문사와 시민들은 정영녕을 매국노로 간주하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변호인과 그 가족까지 비난했다.『일본』신문 측에서는 모리야의 사무소에 가서 일부러 그 앞에서 신문을 판매하면서 ‘매국노’라고 외쳤다. 오카무라의 동생 또한 ‘매국노의 동생’으로 지목되어 그가 운영하는 진료소 또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했다.[54]

이러한 신문 보도나 소송내용을 보면 당시의 정영녕에게 제기된 매국문 작성 혐의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정영녕의 매국문 작성 혐의는 어디서 비롯되었을까?『대지회고록』에서는 당시 정영녕이 주일공사 이경방에게 초빙되어 공사관을 일상적으로 출입한 것이 물의를 빚고 의혹을 불러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55] 1891년 정영녕이 이경방의 초청을 받아

54)「国賊弁護(2)—鄭永寧事件—」
55)『対支回顧録(하)』, p.35.

청국 주일본 공사관 동문학당(東文學堂)[56]에서 교습을 맡아 청국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쳤으며 공사관을 출입하는 일이 확실히 있었다. 이 동문학당의 인재 양성은 우선 1882년 9월부터 1888년 정월까지 이뤄졌다. 이후 동문학당은 문을 닫았고 3년 뒤인 1891년 청국 주일본 공사 이경방은 동문학당을 복원했고, 1891년 정월부터 청일전쟁 직전까지 재차 인재 양성이 진행되었다.[57] 청국 주일본 공사관 경비 지출 명세서에 따르면 정영녕은 1891년 정월 15일부터 같은 해 12월 15일까지, 1893년 8월 20일에서 1894년 8월 19일까지 교습을 담당했다.[58] 시간적으로 보면 정영녕이 청국 주일본 공사관을 드나든 지 한 달여 만에 매국 혐의가 불거진 것이었다.

한편 청국 주일본 공사관의 동문학당은 창립 당시부터 청일전쟁 발발 시점까지 5명의 일본인을 초빙하여 학생을 가르쳤으나, 정영녕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매국노라는 오명을 면했다. 따라서 동문학당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것 자체를 매국 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대지회고록』이나 『조야신문』에서 지적했던 정영녕의 공사관 출입이 매국문 작성 혐의를 가져온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청과의 외교 활동 과정에서 정영녕이 이홍장과의 접점이 많았던 점이 정영녕의 매국 혐의를 더욱 심화시켰던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영녕은 1870년부터 다테 무네나리(伊達宗城),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 야나기하라 사키미쓰(柳原前光)의 사절단을 수행하여 주 북경 일본 공사관에 머무를 때도 각종 교섭과 협상에서 이홍장 및 그 부하들과 접촉하기도 했다. 1885년 정영녕이 마지막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따라가 진행한 천진 담판의 대상 또한 이홍장이였다. 한편으로 1891년 정영녕을 초빙하여 동문학당을 지도한 이경방 공사는 바로 이홍장의 양자이기도 했다.

한편 당시 제기된 정영녕의 매국 행각은 바로 정영녕이 당시의 공사인 이

---

56) 동문학당(東文學堂)은 주일본 청국 공사관이 1882년에 개설한 일본어 학교, 청일전쟁 전 제일 먼저 일본어 통역관을 양성하는 공식기관이다. 1896년에 京師同文館은 동문관(東文館)을 증설했다.

57) 王寶平, 「近代中國日語翻譯之濫觴－－東文學堂考」, 『日語學習與研究』, 2014(2).

58) 中國第一歷史檔案館藏, 「駐日公使館支出經費清單」, 許海華(2019)에서 재인용.

경방에게 상서하여 일본에 출병하라고 선동했다는 일이었다. 1890년대 초 동아시아의 정세가 불안해지자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냈다. 이에 일본 국내에서는 청일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와중에 1891년 정여창(丁汝昌)과 북양함대는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아 일본을 방문했다. 이때는 북양함대는 최전성기에 있었고 그 실력은 일본 해군보다 훨씬 앞서 있었던 점에서, 당시 북양함대의 방문은 일본 관민 각계에 큰 자극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받았다.[59]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 신문에서 보도된 정영녕의 매국문의 작성 혐의가 더욱 확산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청일 관계가 극도로 경색되어 있던 1890년대에서 정영녕이 매국노라 불리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일본 사회에 청나라를 향한 불만이 오랜 세월 쌓여왔고, 이를 발산할 출구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때마침 『일본』이 '매국문 사건'을 보도한 것이다. 정영녕은 일본 정부에서 일했던 화예였고, 청국공사관에도 자주 출입했던 만큼 '희생양'이 되기 쉬웠다. '매국문 사건'이 보도되자 정영녕은 일본 사회에서 외면당했으며 나아가 매국노라 모욕당했다. 심지어 정영녕을 위해서 변호를 해준 변호인 동생이 하는 진료소 또한 사회에서 배척당하기도 했다. 앞서 살펴보았듯, 정영녕은 일본에 충성을 다하는 '일본인' 외교관이이었다. 게다가 정영녕은 자신의 중국 혈통의 기원을 현존하는 청나라가 아닌 이미 망국이 되어버린 명나라에서 찾고 있었다. 그렇지만 상기한 시대 배경 하에서 정영녕은 청측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한 '매국노'로 전락하였다. 결론적으로 '매국문 사건'이 발생한 1890년대 당시의 일본 사회의 여론은 평생토록 일본에 충성한 화예 출신 외교관 정영녕을 일본인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청과 일본 사이에 있는 '경계인'으로 간주하여 그를 '매국노'로 간주하여 배척하려 했다고 할 수 있다.

59) 「国賊弁護(2)—鄭永寧事件—」

제2장 鄭永昌의 외교 활동과 염운사업

제1절 주천진 영사 정영창과 천진의 일본 조계

정영창은 정영녕의 장남으로 1855년 십이월 11일에 태어났다. 그의 일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대지회고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60] 정영창은 1870년에 외무성의 관비생으로 선발되어 외무성의 남경어를 가르치는 한어학교에 입학했다. 2년 뒤인 1872년에는 출장차 청에 가는 부친 정영녕을 따라가 천진에서 북경어를 배웠고, 상해를 경유하며 남경어를 배웠다. 일본으로 돌아간 뒤에는 다시 외무성의 관비생으로 임명되었다. 1874년에 야나기하라 사키미쓰(柳原前光) 공사가 청국공사로 파견되었을 때, 정영창은 일등서기관이던 부친 정영녕을 따라갔다. 정영녕이 대리공사로 임명되자, 정영창은 일등서기견습으로 북경에 부임했다.

1877년 정영창은 일등서기견습직을 사임하고 사비로 미국 유학을 떠났다. 정영창은 1878년 뉴욕의 일본영사관 서기생으로 임명되어 미국에서 8년간 머물다가 1884년에 귀국 명령을 받고 나가사키에서의 아편 사건 재판의 통역을 맡았다. 1884년 2월, 정영창은 천진 영사관의 서기생으로 임명되었다. 1887년 그는 북경공사관 교제관(交際官) 시보(試輔)로 임명되었고, 1889년 삼등서기관, 1892년 이등서기관으로 승진했다. 1894년 청일전쟁이 발생했을 때, 정영창은 일본으로 귀국해 일본군 제2군을 수행하여 여순구민정관(旅順口民政官)으로 임명되었다. 전쟁 후에는 재차 북경공사관으로 복귀했다. 1896년 3월 2일 천진영사관 이등영사로 영전했고, 1897년에는 일등영사로 승진했으며, 1902년 사임할 때까지 약 5년간 천진영사를 맡았다.

1896년 3월 2일 정영창이 천진영사관 이등영사로 임명되었을 때 당시 외

60) 이하 정영창의 일생에 대한 서술은『대지회고록』, pp.36~37을 참조해 정리했다.

무대신 임시대리 사이온지 긴모치(西園寺公望)는 정영창에게 일본의 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① 일본과 청국 사이에 체결한 규정에 따라 특히 무역, 교통, 항해의 이익을 보호할 것, ② 일본 혹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의 신하들이 도움이 요청할 경우 권고와 구원을 할 것, ③ 일본제국의 법과 훈령에 따라 각종 사무를 처리할 것의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다.[61]

한편 1896년 7월 청일 양국이 「청일통상항해조약(淸日通商航海条約)」을 체결하여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청국 내에서 상공업 활동 및 개방된 항구에서의 공장 설립권을 얻었으나 조계 설립까지는 이뤄내지 못했다. 결국 쌍방은 담판을 거쳐 1896년 10월에 북경에서 「공립문빙(公立文憑)」 (「通商口岸日本居留地議定書」라고도 함)을 체결했고, 일본은 청국에 조계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1896년 11월 16일 외무차관(次官) 고무라 주타로(小村寿太郎)는 정영창에게 조계 부지를 선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62]

1896년 11월 22일 일본의 주청일본국공사 야노 후미오(矢野文雄)는 북양대신・직예총독 왕문소(王文韶)와 조계 설립 관련 사안을 상의하기 위해 천진으로 이동했다. 이후 일본 외무성은 재차 정영창에게 조계 부지 선정을 조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정영창은 외무성의 명령을 받고 당시 천진에 있던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조계의 현황과 일본 정부의 조계 후보지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1896년 12월 12일에 외무성에 보고를 올렸다. 정영창은 이 보고를 통해, 일본 조계의 부지는 교통이 편리하고 앞으로도 번영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영창은 해당 보고서에 수기로 작성한 천진의 각국 조계 지도, 일본 조계 부지 선정도 등을 첨부했으며, 청국 지방관들과의 협상 방식을 제시하기도 했다.[63]

12월 15일 정영창은 재차 고무라 주타로 외무차관에게 청국 정부의 동태

---

61) 「淸国天津駐在被命タル二等領事鄭永昌へ御委任状御下付ノ件」, 国立公文書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A04010021900

62) 『在支帝国専管居留地関係雑件／天津之部第一巻』, 外務省外交史料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B12082544800, p.186.

63) 『在支帝国専管居留地関係雑件／天津之部第一巻』, pp.187-205.

를 보고하는 서한을 보냈다. 해당 서한을 통해, 제국의 거류지 부지가 독일 거류지의 남쪽에 있는 평야 지역으로 정해져 있으나 이곳은 상업의 중심지와 떨어져 있어서 거류지로서 발전성이 없다고 하여 거류지의 부지를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64] 1897년 5월 4일 정영창은 천진에 있는 각국의 거류지 상황 및 영국·프랑스 거류지의 규칙 등의 자료를 외무성에 전달하기도 했다.[65]

주청일본국공사 야노 후미오는 1897년 10월 27일에 청국 직예총독 왕문소에게 조회를 보내서 자국이 선정한 조계 부지의 주소를 전달했다. 야노는 왕문소에게 보낸 조회를 통해, 일단 조계의 설립은 통상을 위한 것이므로 번화한 도시와 떨어져 있으면 안 되나, 번화한 도시에 조계를 설립하여 기존 주민들에게 이주 부담을 주면 안 되므로 조계 부지 주소 선정이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이번에 선정한 조계 부지는 강변 일대에 많은 민가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남은 대부분의 지역은 매우 습하고 황량하기에, 이번 조계 부지 선정은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영원히 편안한 계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계를 긋고 토지를 구매하는 일을 비롯한 모든 세부 사항은 반드시 주천진영사에게 해당 지역의 지방관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하였다.[66] 이에 같은 해 10월 말 정영창은 주천진 부영사 등과 더불어 직예총독 왕문소 등과 조계지 획정 문제를 직접 논의했다.

당시 『국문보(國聞報)』가 조계지 획정 사안을 보도하자, 조계지 획정 논의는 천진 상인들의 이목을 끌었고, 상인들은 조계지 획정에 반대를 표시했다. 천진 상인들은 이곳에 현재 정미소가 자리 잡고 있고, 수문구 일대에는 주민들이 집결되어 있으며 도로도 연결되어 있고, 주택 밀도가 도시 내부와 맞먹는다는 점을 제기하며 이 구역에 조계가 들어선다면 틀림없이 수만 명의 주민들이 의지할 곳을 잃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현지

---

64) 『在支帝国専管居留地関係雑件／天津之部第一巻』, pp.206-208.
65) 『在支帝国専管居留地関係雑件／天津之部第一巻』, pp.209-273.
66) 『在支帝国専管居留地関係雑件／天津之部第一巻』, pp.296-297.

상인들은 청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하여 다른 곳을 선정하게 하기를 바랐다. 청국 정부 또한 상인들의 청원에 따라 일본에 조계지 변경을 요구했다.[67]

직예총독 왕문소는 1897년 12월 7일 일본 전권대신 야노 후미오에게 일본 측이 계획한 조계지는 땅이 협소하고 인구가 조밀한 지역이므로, 그곳에 조계를 설치한다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의지할 곳을 잃고 떠돌아다닐 것이라고 언급하며, 일본 조계지를 사람이 없는 다른 곳으로 정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왕문소는 조계지의 설립은 민생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민의를 거역해서는 안 되니 일본이 다른 부지를 마련할 방책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다.[68] 그러나 야노 후미오의 태도는 아주 강경했다. 12월 21일 야노 후미오는 답장을 통해 천진의 조계 설치는 전년 10월 청국과 체결한 「公立文憑」에 따른 것이며, 일본 측이 계획한 조계지 부지 주소는 하천 연변의 민가가 많은 땅을 제외했고, 그 이외의 땅은 매우 습하고 황량한 지역이므로 매우 공평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하였다. 또한 만약 광야나 사람이 없는 곳을 택한다면 왜 조계지를 설치하겠느냐며 반문했다.[69]

1898년에 들어서 청일 양측은 정식 담판을 진행하였다. 1898년 4월 5일 오후 3시 청일 양측은 해관도(海關道) 관아에서 제1차 회담을 진행했다. 청국 측에서는 진해관도 이민침(李珉琛), 천진도 고참린(高驂麟), 천진부 및 현의 장관, 보갑국(保甲局) 총판(總辦) 및 번역관 등 여러 사람이 참석하였다. 일본 측에서는 정영창 영사, 후지타 도요사부로(藤田豐三郎) 외무서기관 및 도쿠마루 사쿠조(德丸作藏) 외무통역생이 참석했다.[70] 제2차 회담은 4월 14일 오후 3시에 해관도 관아에서 진행했다.[71] 반복된 협상 끝에 쌍방은 예정 조계지의 범위를 대략 정했다. 왕문소의 4월 22일과 5월 14일자 일기에서는 일본 영사 정영창이 찾아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72] 해당 기록을 통해 당시

---

67) 『在支帝国專管居留地関係雑件／天津之部第一巻』, pp.314-316.
68) 『在支帝国專管居留地関係雑件／天津之部第一巻』, pp.348-349.
69) 『在支帝国專管居留地関係雑件／天津之部第一巻』, p.355.
70) 『在支帝国專管居留地関係雑件／天津之部第一巻』, p.363.
71) 『在支帝国專管居留地関係雑件／天津之部第一巻』, p.373.

정영창이 조계지 확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며 왕문소의 의견을 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898년 8월 29일 정영창은 일본의 대표로서 청국과 「일본조계속립조약(日本租界續立草約)」, 「속립문빙(續立文憑)」을 약정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 천진 조계지 설립이 확정되었다.[73] 『在支帝国專管居留地関係雑件／天津之部』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영창이 일본 외무성에 보낸 여러 보고 및 번역 문서를 통해, 청일 양국은 일본의 천진 조계지 설립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러한 합의는 정영창의 상세한 사전 조사와 더불어, 외교관으로서 그가 중국 관원과 부단히 진행해온 협상의 덕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이민침이 "정 영사가 천진에 있은 지 오래되어 천진의 상황에 이미 익숙해진 덕분에 이번에 일이 재차 해결되었고 (중략) 해당 영사 업무는 (청 정부의) 허락대로 처리해야 한다"라고 한 점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74]

1900년 의화단운동이 발발했을 당시, 정영창은 여전히 천진에 머무르면서 일본 정부에 천진의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의화단운동으로 인해 8개국 연합군이 북경과 천진 지역을 공략하자 열강은 이를 빌미로 조계를 확장했으며 일본 또한 이러한 추세에 편승했다. 이러한 조계 확장의 추세 속에서, 정영창은 천진 일본 조계의 확장 과정에서도 사전 조사와 교섭 담당의 중추를 담당했다. 우선 1900년 9월 20일 정영창은 「천진 현황 보고서」에서 각국의 조계 및 중국 구역의 상황, 천진에서의 일본 상인들의 현황, 당시 천진 경제 등 여러 방면의 상황을 외무성에 상세하게 보고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정영창은 "정부는 장차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을 연구하여 일본인의 권익이 구미인에게 수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75] 같은 해 12월 13일, 정

---

72) 王文韶, 『王文韶日記』, 袁英光・胡逢祥整理, 中華書局, 1989, p.993.

73) 『在支帝国專管居留地関係雑件／天津之部第一巻』, pp.473-475.

74) 天津檔案館　南開大學分校檔案系편집, 『天津租界檔案選編』, 天津人民出版社, 1992, pp.190, 194-195.
"幸鄭領事在津年久, 情形既熟, 事理又複了亮 (생략) 該領事業經應允照辦" 靳佳萍・萬魯建(2016)에서 재인용.

75) 鄭永昌, 「天津領事館報告(明治33年9月8日～明治33年10月1日)」, 外務省外交史

영창은 외무대신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에게 전보를 보내 전관거류지(專管居留地) 구역 확장을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전보에서 각국이 의화단사건을 통해 천진에서 토지를 점령하거나 거류지를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으며 앞다투어 토지를 점령하거나 거류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니, 일본 또한 거류지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영창은 각국의 의심을 사는 일을 피하고 조계 확장에 대한 타국의 방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천진에 있는 일본 육군 제5사단 아키야마 요시후루(秋山好古)와 상의하였다. 정영창은 이번 의화단사건 강화 협상의 조건으로, 군관구 지역을 반드시 일본의 거류지로 확장하자는 요구를 청국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하며 만약 이 기회를 놓치면 그 목적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76]

1901년 1월 5일, 정영창은 조계지의 확장 범위를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정영창이 주장한 조계지의 확장 범위는 인근의 프랑스 조계의 확장 범위와 맞닿아 있었다. 또한 정영창은 조계 내의 주민들은 각각 예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하며 부동산은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 국민에게 매매해서는 안 되고, 부동산 계약서는 반드시 신속하게 서류로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였다.[77] 1월 8일 정영창은 거류지 내의 청국인 소유 토지와 가옥을 다른 외국인에게 매매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78]

한편 1901년 2월 18일의 문서에 따르면, 청 측에서는 프랑스가 일본보다 먼저 복음당(福音堂) 일대까지 확대된 거류지를 요구했기 때문에 일본 측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정영창은 "만약 이 기회를 빌려 프랑스 총영사와 교섭하고 이 지역을 우리나라(일본)에 양도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술한 희망을 관철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일본 조계지의 확대를 극력 주장했다. 따라서 정영창은 프랑스 조계지의 부두(埠頭)에서 일본 조계지에 이르는 경계선을 직선으로 그어 두 나라의 경계선으로 삼는 것이

料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B11100055700

76) 『在支帝国専管居留地関係雑件／天津之部第二巻』, pp.140-145.

77) 『在支帝国専管居留地関係雑件／天津之部第二巻』, pp.158-159.

78) 『在支帝国専管居留地関係雑件／天津之部第二巻』, pp.154-155.

가장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영창은 프랑스 영사를 방문하여 협상을 통해 프랑스 예비 조계지였던 일부 지역을 임의로 일본 조계지로 획정하려고 하였다.[79] 결국 일본과 프랑스 쌍방의 협상을 거쳐 프랑스 정부는 최종적으로 조계지를 확장하려고 준비해 둔 소택지 89무(畝) 이상을 일본에 양도하는 데 동의하였다.

1901년 4월 20일 문서에서 후임 총영사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는 "(의화단-인용자)사건 발생으로 현지 정세가 급변했고 다른 국가들이 앞다퉈 토지를 확장하거나 거류지를 신설했다. 그래서 정영창도 우리의 거류지를 확장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기록하였다. 결국 일본 정부는 1903년에 체결된 「천진 일본조계 확장조약(天津日本租界推廣條約)」을 통해 조계지 확장을 공식적으로 확정시켰으며, 확대된 조계지 면적은 2,100여 무에 달했다.[80] 상술한 확장 과정을 거치며 일본 조계지는 영국, 프랑스 조계지를 연결하는 중간 지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천진의 구시가지와 조계지의 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다.

상술한 일본의 천진 조계 설립과 확장 과정에서, 정영창은 일단 상세한 현지 조사를 통해 조계지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일본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한 그는 천진 조계 설립 과정에서는 주로 청 측 담당자들, 조계의 확장 단계에서는 청 측 및 프랑스 측 담당자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교섭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정영창의 행보는 천진 조계에서 일본의 이익을 관철하는 데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절 정영창의 염운사업 추진과 실패

한편 『대지회고록』에 의하면 1902년 일등영사를 사임한 이래로, 정영창이 점차 식염 교역으로 관심을 전환했음을 알 수 있다. 정영창은 직예총독(直隸

79) 『在支帝国専管居留地関係雑件／天津之部第二巻』, pp.188-190.
80) 『在支帝国専管居留地関係雑件／天津之部第二巻』, pp.206-212.

總督) 원세개(袁世凱)의 의뢰를 받아 총독이 직할하는 대청하(大淸河) 염전(鹽田)에서 생산한 식염을 일본, 조선 그리고 러시아 영토인 연해주로 수송해서 직예총독의 재원으로 삼고자 했다. 정영창이 현지 염업 생산판매 상황을 시찰하고 계획할 때, 뜻밖에 발생한 러일전쟁으로 인해 청 정부의 내부적인 형세가 변화하여 정영창은 어쩔 수 없이 식염 운송 계획을 중지했다. 이후 정영창은 일본군에 방한용 모피 복장을 제공하기 위해 북경 일대에서 모피를 수매하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만주에 있는 일본군 총사령부의 부탁을 받고 요동반도 내의 염업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81]

정영창의 이러한 계획은 190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었다. 1905년의 기후변화로 인해 일본의 식염 생산량이 감소하며 식염 공급이 어려워졌다. 일본 정부는 식염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동 반도의 식염을 수입하려고 하였다. 이에 정영창은 1905년에서 1906년 여름까지 원세개의 계획대로 몰래 직예성의 관염(官鹽)을 수출하여 일본의 식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우선 1905년 9월 정영창과 유악(劉鶚)[82]은 천진에 식염을 정제하는 해북염운(海北鹽運) 회사를 설립하였다. 유악 관련 자료인 『철운선생연보장편(鐵云先生年譜長編)』에 의하면, 1905년 가을 정영창과 유악은 천진에서 함께 해북염운회사를 창립하였고 원래는 동북쪽에서 소금을 정제해서 일본으로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동북 3성에서의 활동이 실패함으로써 조선에 소액의 운송 판매를 하게 되었다고 서술했다.[83]

유악의 『포잔수결재을사일기(抱殘守缺齋乙巳日記)』에서 유악과 정영창의 만남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1905년 8월 27일이다. 8월 31일의 일기에는 정영창과 유악이 일본주천진 총영사 이주인 히코키치(伊集院彦吉)를 비롯하여, 당시 중국에 재임하고 있던 일본 외교관 고무라 주타로, 다카오 도오루(高尾亨) 등과 함께 식사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틀 뒤인 9월 2일 유악과 총영사

81) 『對支回顧錄(하)』, p.36.
82) 劉鶚(1857-1909), 청국의 소설가, 상인.
83) 劉蕙孫, 『鐵云先生年譜長編』, 齊魯書社, 1982, p.125.

이주인이 3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유악이 이주인을 만난 바로 다음 날인 9월 3일부터 5일까지 정영창은 유악을 매일 찾아갔다. 9월 6일자 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유악이 정영창과 계약을 맺었다는 기록을 통해 해북염운회사가 1905년 9월 6일에 설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84] 비록 1905년 당시 정영창은 이미 외교관으로 활동하지 않았으나 해북염운회사 계약을 맺은 전후로 그 창립자인 정영창과 유악이 주천진 총영사 이주인 등 일본 외교관들을 빈번히 만난 사실이 있었다.

유악의 일기에서는 유악이 정영창과 계약을 체결하고 동북 심양 등지로 가서 활동하였으며 성경장군(盛京將軍) 조이손(趙爾巽)에게 상신서를 올렸다고 기술하고 있다.[85] 『유악연보장편(年譜長編)』에서 나타나는 '활동 실패'라는 언급은 성경장군서에서 유악의 상신서를 기각한 것을 가리킨다. 조이손은 이에 대해 "염무(鹽務)는 국가 전매특허로서, 보고한 상신서를 살펴보니, 전국에 세금이 부과되는 데 장애가 많아 실행하기 어렵다. 계약서를 돌려준다"[86] 라고 했다. 또한 『유악연보장편』에 따르면 "8월 초에 정영창과 계약을 체결한 이래로 60여 일이 되었다. 원래는 정제염을 제조하여 일본에 운송해 판매하려 하였으나 그것이 성사되지 못해서 방향을 바꾸어 길림 및 조선 국경으로 운송 판매하려고 했다"면서 "이런 식으로 식염을 운송하고 판매하는 것은 밀수의 성격이 있다"[87]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영창과 유악은 청국 정부의 제한을 타파하기 위해, 식염을 한반도로 수송해 판매하려 하였다. 청국 식염을 한반도에 판매해서 시장을 독점하고 폭리를 도모한다는 목적에서 정영창은 유악과 공동으로 한국염운회사(韓國鹽運會社)를 설립하려고 하였다. 정영창의 주도하에 그들은 자금모집, 조직화, 경영, 구매와 판매 등의 일련의 계획을 세워 일본 통감부를 위시한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았다. 1906년 팔월 이미 대한제국 정권을 장

---

84) 劉鶚著, 劉德隆編, 『抱殘守缺齋日記』, 中西書局, 2018. 乙巳日記 8월 24일~9월 6일 일기 내용.

85) 『抱殘守缺齋日記』 乙巳日記 9월, 10월 일기 내용.

86) 『鐵云先生年譜長編』, p.126.

87) 『鐵云先生年譜長編』, p.127.

악한 일본통감부의 지지 하에, 정영창 등은 한국농상공업부의 심사 비준을 거쳐 한국염운회사를 창립하였다.

한국염운회사 초기에 50만 원의 자금을 모아 대한제국 황족 출신인 완순군 이재완을 명예총재로 끌어들이고 실권을 장악한 사람이 바로 정영창이었다. 더불어 한국염운회사는 한국 정부 및 각 도의 지방관과 관련된 교섭은 한국인이 담당하고, 일본의 관아 및 청 정부와의 모든 교섭은 일본인이 책임진다고 규정했다. 한국염운회사 총국은 서울에 설치되었고 인천, 진남포, 의주 등지에 지국을 두었다. 관련 사료에 의하면 한국염운회사의 경영 취지는 중국 요동반도에서 생산한 식염을 한국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88]

그러나 청조 동북지역의 식염 구입 계획이 좌절되자, 청국의 제염업 동향에 익숙했던 정영창은 천진 장로염구에서 생산된 식염, 소위 장로염(長蘆鹽)[89]을 구입하고자 했다. 이에 정영창은 주중국 일본 대사관을 통해 청 정부에 장로염 구매를 요청했다.

1907년 6월 8일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일본 공사는 청국 외무부에 "한국염운회사 대표이자 부사장인 정영창은 지난해 9월에 한국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 한국염운회사를 설립하고 요동 국경 내에서 식염을 임차하여 한국으로 수입해서 한인(韓人)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하려 한다고 전했다. 해당 편지에서 하야시는 정영창이 자신에게 보낸 설첩 전문을 인용했는데, 해당 설첩 부분에서 정영창은 요동에서 생산한 식염이 모자라자, 장로염장의 식염이 매우 많이 쌓였다는 소식을 듣고, 매년 20~30만 포대를 자기 회사가 구입할 터이니 식염을 산동에서 한국으로 밀수출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을 전하게 했다. 아울러 정영창은 규약의 조문을 찾아보니 내지의 식염이 원래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한편 직예에서 생산한 식염을 해마다 러시아 국경 블라디보스토크 현지로 운송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며 한국의

88) 『淸季中日韓關係史料』,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1972, pp.6482-6483.

89) 장로염장(長蘆鹽場)은 중국 3대 염장의 하나이고 또한 중국에서 해염생산량이 가장 많은 염장으로서 발해만에 위치하여있다.

일도 같은 법칙이니 전례대로 융통성 있게 처리해주기를 요청했다.[90]

청국 외무부는 하야시 곤스케의 편지를 접수한 뒤, 한편으로는 재정 사무를 관장하는 기구 탁지부(度支部)에 문의하면서 한편으로는 청국 주한 총영사 마정량(馬廷亮)에게 한국염운회사 사정을 자세히 알아볼 것을 명했다. 5월 22일 외무부는 일본 공관에 "규약의 조문에 따라 중국 식염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한편 블라디보스토크로의 식염 운송 사건도 이미 기각되었으니, 이번에 장로염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보내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허락할 수 없다"[91]라고 답을 보내며, 장로염의 반출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처럼 장로염 반출이 좌절되자, 정영창은 청 정부로 하여금 산동 상인의 식염 밀수를 금지하도록 요구할 것을 일본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 7월 18일 정영창은 당시의 일본 대리공사 아베 모리타로(阿部守太郎)를 통해서 외무부에 편지를 보냈다. 해당 편지에서 정영창은 산동성 상인들이 식염을 밀수하는 상황이 심각하여, 산동순무와 청국 주한 총영사를 통해서 식염 밀수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92]

8월 7일 외무부는 주한 총영사 마정량의 보고를 받았다. 마정량은 해당 보고를 통해 일단 한국염운회사와 관련해 "원래 한인이 설립한 것 같으나 사실 이 회사의 발기인은 일본인인 정영창이고 그는 천진의 영사였다. 또한 그 계약서에서는 중국인 유철운(劉鐵云, 즉 유악), 유대장(劉大章, 유악의 아들)이 모두 발기인으로 되어 있다"고 서술했다. 다음으로 마정량은 산동 상인들의 염운 상황을 진술하면서 "염운회사는 결코 관립이 아니고 개인의 독점적인 모략을 위한 회사이니 어찌 화상(華商)의 운수를 금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화상은 한국에서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단, 잡화 등은 모두 일본 상인들이 늘 탐을 내는데 만약 이를 계기로 그들이 또 비단 운송, 잡화 운송 회사의 명목을 세워 중국인들의 판매를 막으려 한다면 화상(華商)의 장사를 상상할 수 있겠는가?"[93]라고 주장하기도 했다.[94]

---

90) 『淸季中日韓關係史料』, pp.6439-6441.
91) 『淸季中日韓關係史料』, p.6464.
92) 『淸季中日韓關係史料』, p.6473.

마정량의 보고에는 다섯 가지 부속 서류가 동봉되었는데, 해당 서류들을 통해 청 정부는 비로소 한국염운회사가 국영 기업이 아니라 개인회사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정영창과 동업한 사람이 중국인 유악 등이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부속 서류들 가운데 청원서와 편지가 존재하는데, 해당 청원서와 편지를 통해 당시 정영창이 염운사업에 대해 고안했던 바를 엿볼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95]

> 무릇 상품의 판로는, 그 물품의 유무 및 도로의 원근(과), 보급의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상업에 일정한 관례가 없다면, 동일한 물품인데 판매 가격에 고저가 있어 이것이 원인이 되어 상업의 폐단이 생겨나 민이 그 손해를 받을 것은 설명을 기다리지 않아도 명확합니다. 대저 사람의 일용품은 식료품을 가장 요긴하고도 중요한 것으로 삼는데, 그중에서도 식염은 절실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한국)의 해변 각지에서는 식염이 생산되지 않는 것이 아닌데 그 가격이 뛰어서 근년 이래 상인들이 이 기회를 엿보아 큰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니, 귀국(청나라)에서 사염(私鹽)을 매해 수입하는 것이 일억 오천만 근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에 이르면, 이는 이미 상업계와 민간 식품의 일대 관건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 상인들이 탈세의 때를 기다려 연해 각지에서 밀수 암매하여, 고로 연해 지방에서 요행히 염가에 식료품을 무역하고,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는 그 가격이 연해에 비해서 다섯 배 정도도 아니게 되어, 여러 인민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이 통계로 매해 수만 금에 이르고 있으니, 이는 일시균혜(壹視均惠: 동일하게 보고 균등한 혜택을 준다)의 의(義)에 크게 결점이 됩니다. 만

---

93) 『淸季中日韓關係史料』, pp.6482-6483.

94) 또한 마정량은 해당 보고에서 산동성의 식염이 한국으로 운송되는 상황도 설명했다. 마정량은 산동의 식염이 榮成, 文登, 海陽, 寧海 등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어, 어민들이 어선을 타고 장문항(張門港) 등 내지의 세관에서 세금을 완납한 후 한국의 인천, 진남보 등 항구에 가서 수출한다. 혹은 통상항구의 해관에 납세하거나, 혹은 한국의 연안에서 통상하지 못해 항구에 판매하거나 콩이나 쌀을 산동으로 운송한다. 금액이 매년 수십 만에 이른다고 하였다.

95) 『淸季中日韓關係史料』, pp.6484-6485.

약 회사가 일정한 규칙을 세운다면 매매의 때에 원근을 구별하여, 가격의 등차를 헤아려 정하면 인민이 은혜를 입음이 심히 많을 것이고, 또한 따라서 일정한 세규를 세운다면 국익에 보태는 바도 역시 클 것입니다. 따라서 발기인(發起人) 등이 관민과 공중의 이익을 (먼저) 헤아리고, 자본을 모집하고, 회사를 창립하고, 조관별지하는 것은 그 후에 하게 하여, 청컨대 조량해주시고, 인가해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아래는 정영창이 유악에게 보낸 편지이다.[96]

이후에 만약 일본인이 한국 정부에 청하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일본인이 한국의 이권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반박해야 합니다. 한국의 명망 있는 자들은, 대개 이미 본사가 이름을 열거했지만, 역시 어떤 사람도 능히 계속하여 일어나 친왕 및 여러 사람들과 이익을 다툴 수 있는 자가 없으니, 이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이익 독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관을 가지고 북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동생은 동경에서 홀로 살피고 있다가, 전보가 있으면, 즉시 출발할 테니, 함께 한국으로 가서 일체 경영을 처리합시다. 다시 일을 논하자면 비록 겨우 오십만을 말했으나, 당시 북반국(北半國)만 가리켜서 헤아려 판별해 말한 것이니, 다만 공사가 세워진 후에 필히 전국으로 추진 확대하여, 백만까지는 할 수 없어도, 헤아려 정하기를 바라여 요청합니다.

상술한 마정량 보고 및 부속서류들을 통해 정영창은 편지에서 식염 밀수의 현상 분석, 회사 미래의 발전 등에 대해 자세히 고안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정영창이 당시 염운사업에 대해 상당히 철저하게 사전 준비를 진행하여 신중하게 접근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일본인 정영창이 청국의 식염을 한반도로 운송해 판매하는 것은 청국 동북 민중의 강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1907년 간도(間島) 문제가 발생하면서, 동북 3성의 학생들은 청 정부에 상서하여 일본의 침략 야

96) 『淸季中日韓關係史料』, pp.6487

심을 폭로하고 규탄하였다. 당시 학생들은 지금까지 각국과 조약을 맺어 모두 외국산 식용 식염 수입을 허가한 전례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염업 경영에 청국의 주권이 걸려있다는 점을 지적했다.[97] 말하자면 당시 동북 3성에서는 청 정부에 주권을 수호하고 염업 자원을 보호하며 자국의 상업 이익을 보장할 것을 호소했던 것이다.

결국 정영창이 의도했던 장로염의 반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정영창은 한국으로 돌아가 새로운 대책으로서 산동성 식염 수입을 시도했다. 1907년 11월 8일 마정량은 외무부에 편지를 보냈다. 마정량의 편지에 따르면, 정영창의 계획은 유악의 동업자인 고자형(高子衡)과 함께 한국의 인천, 진남포를 방문해, 화상(華商)들에게 출자금을 모금하여 한국염운회사가 독점적으로 산동성의 식염을 수입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영창의 계획은 각지 화상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했다. 이러한 면모는 마정량이 첨부한 자료 가운데 인천, 증남포 화상들의 식염 수입 반대와 청 정부의 보호 신청의 내용을 담은 연명 편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98]

같은 날 마정량이 외무부에 보낸 다른 편지에서는 한국염운회사의 의도를 분석했다. 이 분석에 의하면, 정영창을 위시한 한국염운회사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모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모색한 해결책은 우선 통감부와 일본대사관을 통해 청 정부가 산동순무에게 명해 한반도로의 식염 밀수를 금지하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주한 총영사를 통해, 재한 화상들에 압력을 가해 이들이 한국염운회사의 독점적 식염수입을 반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 식염 수입을 독점하는 것이 한국염운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이다. 또한 마정량은 편지에서 한국염운회사의 계획에 따라 연해 어민들이 식염 밀수하는 것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99]

그러나 청국 외무부는 일본공사관의 요구에 응하여 산동순무 및 청국 주

---

97) 『淸季中日韓關係史料』, p.6502.
98) 『淸季中日韓關係史料』, p.6609.
99) 『淸季中日韓關係史料』, p.6613.

한총영사에게 식염 밀수 금지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러한 금지령으로 인해, 한반도로의 식염 밀수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졌다. 12월 26일 청 정부는 재차 마정량에게 방법을 문의하였다. 이에 다음해인 1908년 1월 18일 마정량은 의견을 보냈다. 해당 문건에 의하면 마정량은 식염 밀수 문제에 대해 '외부인은 이것을 빌미로 삼지 못하도록'[100] 어민들의 식염 밀수를 금지시키지는 않되 상인들이 대량으로 식염을 밀수하는 것만 금지시키라는 건의를 제시했다. 이에 외무부는 마정량의 의견에 따라 금지령을 약간 완화하는 것으로 처리하면서, 식염 밀수 문제는 잠시 수습되었다.

이후 정영창은 재차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일본대사관을 선동하여 청조 정부가 산동에서의 식염 밀수를 금지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청 측에서도 유악을 체포하겠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吳振淸은 청 국정부가 유악을 체포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정영창과 한국염운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시기 정영창이 북경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청 외무부는 정영창을 고려하여 유악 체포 계획을 잠시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101] 1908년 3월에 마정량은 외무부에 "정영창이 영사관에 오지 않은 지 오래되어 현재는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102] 라고 보냈다. 그러나 몇 개월 동안 한국염운회사와 일본 대사관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자, 청 외무부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1908년 삼월에 유악을 체포했다.[103] 유악이 체포된 이후 한국통감부는 한국염운회사의 운영자격을 취소했다.[104] 결국 정영창이 계획했던 산동의 식염 수입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영창의 식염 무역 사업은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정영창은 불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교관에서 식염 유통업자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영창이 진행했던 식염 운송 무역 사업에는 일본 정부와의 깊은 관련

---

100) 『淸季中日韓關係史料』, p.6699.

101) 吳振淸(2001), 劉素芬(2018)

102) 『淸季中日韓關係史料』, p.6771.

103) 吳振淸(2001), p.95.

104) 劉素芬, 「晩淸條約體制下的鹽務交涉與中韓貿易」, 『地域文化硏究』, 2018(02). p.38.

성을 엿볼 수 있다. 앞서 유악의 일기에서 기록된 유악과 정영창 및 이주인 일본 총영사 등 만남의 일정 등을 분석하면, 해북염운회사의 창립은 일본 정부와 관련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정영창은 하야시 공사와 아베 대리공사를 통해서 청 정부에 산동성 식염 밀수 금지령을 내리라는 압력을 주었으며, 유악을 체포하려고 할 때 청 정부도 먼저 정영창의 행방을 확인하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통감부를 비롯한 일본 당국 또한 정영창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정황 또한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볼 때, 정영창이 식염 무역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정영창과 일본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한국염운회사의 운영이 실패로 돌아간 지 5년 뒤인 1913년 8월 정영창은 중화민국 정부로부터 비공식적으로 초빙을 받아 장로염무계핵소(長蘆鹽務稽核所) 소장에 취임하였다. 1913년 4월 26일 원세개는 영국·독일·러시아·프랑스·일본의 5개국과 선후차관(善後借款) 계약을 체결하고 2500만 파운드의 차관을 빌렸다. 염세가 이 빚에 대한 담보가 되었으므로 중국 정부는 5개국의 요구 하에 염무계핵소를 설립하였으며, 산하에 분소(分所)도 설치하였다. 염무계핵소는 외국인을 채용했는데, 이들은 부직을 맡았지만 실권은 막강했다. 이에 중국의 염세 수입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갔다. 정영창도 이런 배경에서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의 대표가 되어 장로염무계핵소 소장이 된 것이다. 1921년에는 봉천으로 옮겼으나 1923년 정년으로 퇴직해서 일본으로 귀국하였다. 귀국 후에는 나고야에서 한거하였고 1931년 10월 4일 향년 77세로 병사했다.

제3장 鄭永邦의 외교 활동과 북경어 교육

정영방은 1863년 2월 16일 나가사키 히가시 후루카와초(東古川町)에서 태어나 형 정영창과 함께 부친 정영녕에게 교육을 받고 도쿄외국어학교를 졸업하였다. 1880년 4월 정영방은 19세의 나이로 시시도 다마키(宍戸璣)의 아래에서 일본 주북경 공사관 부통변(附通辯)견습으로 임명되었다. 정영방은 1884년 6월 본국 정부로부터 외무육등속(外務六等屬)으로 임명되어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계속 북경에 머물고 싶었기에 관직을 그만뒀다. 그러던 중, 정영방은 7월에 어용괘(御用掛)로 임명되면서 재차 북경 공사관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1885년 3월 이토 히로부미는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로서「중일천진회의전조(中日天津會議專條)」즉 천지조약)의 담판을 위해 청국으로 갔다. 이토와 경군왕(慶郡王, 이후의 慶親王 奕劻) 간의 제1차 회담은 이토를 수행했던 부친 정영녕이 통역을 담당하였고 제2차 회담은 일본공사관에서 진행되어 부친 정영녕의 입회 하에 정영방이 통역을 담당했는데, 이는 곧 정영방의 첫 외교 업무였다. 1886년 3월 정영방은 북경공사관 서기생으로 승진하였고, 이듬해인 1887년 12월에는 외무속(外務屬)으로 임명되어 귀국했다.

1889년 1월 정영방은 공사관 서기생으로 임명되어 조선에 부임하였다.『대지회고록』은 정영방이 조선으로 파견된 이유에 대해 "당시 조선에서 청・일본・러시아의 세력 각축이 날로 심해졌으며, 조금 움직이기만 해도 우리나라(일본-인용자)가 밀리게 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조선) 각 도(道)가 방곡령(防穀令)을 내렸으며, 청국공사의 권세가 한국 정부를 압도하였으므로 특히 한어에 숙달한 정영방을 필요로 하여 조선에 특파하였다"라고 했다.[105] 1890년 8월 정영방은 일본 외무성으로 돌아갔다.

---

105)『對支回顧錄(하)』, p.38.

1893년 9월에 정영방은 재차 조선으로 향했고,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정영방도 일본군을 따라 종군했다. 시모노세키에서 청일강화담판이 진행될 때도 정영방은 나카타 다카노리(中田敬義), 나라하라 노부마사(楢原陳政)등의 외교관과 통역 임무를 맡았으며, 이후 훈칠등청색동엽장(勳七等青色桐葉章)과 200엔을 하사받았다.

정영방이 조선에 있는 동안, 1894년 2월 조선 남부에서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했다. 본래 청 조정은 조선에 출병하려 하지 않았으나 봉기한 농민을 진압하는 데 어려움을 겪던 조선 정부에서 5월 21일 청 조정에 출병을 청하는 결정을 내렸다.[106] 이에 조선 정부는 청군의 파병 요청을 위해 청국 주조선 총리교섭통상사의(駐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 원세개와 접촉했다. 이러한 소식은 청 측에도 전해졌지만, 청 측에서는 우선 조선 국왕이 파병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 일본군의 출병 소식을 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파병을 하려 하지 않았다.

청 측은 6월 4일 조선 국왕의 파병 요청 문서가 도착하고 나서야 출병 결정을 내렸다. 한편 청 정부가 출병을 결정하게 된 원인에 대해, 陳貴宗은 일본 정부가 원세개를 속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일본 정부가 원세개를 속인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주장했다.[107] 첫 번째로는 6월 1일 당시 조선에 파견된 정영방이 원세개를 방문해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담화한 것을 들 수 있다. 정영방이 원세개를 방문한 후 원세개는 이홍장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를 보냈는데, 이 보고를 통해 정영방과 원세개 사이의 담화 내용을 엿볼 수 있다.

> 근자에 일본공사관 통역원 정영방이 공사의 명을 받고 찾아와 匪賊(동학농민군)의 정황을 물으며 '匪賊들이 오랫동안 소란을 계속해 商務에 큰 손해를 입어 걱정이 많습니다. 韓人들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106) 陳貴宗, 「甲午戰爭爆發前中日各自決定派兵赴朝的原因」,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1994(01). pp.73-79.

107) 陳貴宗(1994), p.78.

것이 분명하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사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텐데 귀국 정부에서는 어찌 속히 韓 정부를 대신해 戡亂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원세개는 '韓 조정에서도 그러한 청원이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朝鮮軍의) 習戰自強을 바라서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은 것이오'라고 대답하면서 乙酉約(=天津條約)을 들어 '우리가 만약 파병한다면 마땅히 어느 부서에서 知照해야 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정영방은 '總署나 北洋大臣 모두 좋습니다. 우리 정부는 결단코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고 대답했습니다.[108]

해당 사료를 통해, 정영방이 원세개와의 대화를 통해 청 조정의 의중을 파악하려 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정영방은 일본 정부가 '결단코 다른 의도가 없다'며 청 측의 파병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중을 청 측에 전달하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일개 서기생의 입장인 그의 말이 일본 정부를 온전히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세개가 이러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을지는 미지수이나, 정영방의 이러한 행동은 원세개로 하여금 당시 청 측의 파병을 놓고 일본의 의도가 어떠한지를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를 제공했던 것이다.

두 번째로는 6월 3일 진행된 일본 주조선 대리공사 스기무라 후카시(杉村濬)와 원세개의 회담을 거론할 수 있다.[109] 당시 원세개는 "스기무라와 저는 본래 친해서, 그의 말을 들어보니, 일본 정부에 다른 의사(조선 출병)가 없다고 본다."라며 이홍장에게 편지를 보냈다.[110] 이에 陳貴宗은 정영방과 스기무라가 원세개를 속였기 때문에 청 정부에 파병 결정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111] 원세개가 이홍장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스기무라보다 정영방이 더 분명하게 일본 정부의 의도, 즉 조선에 출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원세개에게

108) 「電稿」卷15, '寄譯署', 光緒20년 4월 28일 p.33. 강문호(2005), p.39에서 재인용.
109)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949, 陳貴宗(1994)에서 재인용
110)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954, 陳貴宗(1994)에서 재인용
111) 陳貴宗(1994), p.78.

전달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본 조정이 조선에 출병하지 않겠다는 것은 일본 정부의 기만책이었다. 이처럼 정영방은 조선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청일 양국의 조선 파병이라는 중차대한 사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1896년 3월에 정영방은 일본 정부의 명령을 받아 북경공사관으로 부임하였다. 1900년 의화단운동 시기 북경공사관이 의화단 세력에 의해 포위되었을 때, 스기야마(杉山) 서기생, 나라하라(楢原) 서기관이 잇따라 사망하였으므로, 의화단운동 종료 후 청 측과의 담판 및 제반 교섭은 모두 정영방이 맡게 되었다. 이후 정영방은 이때의 공적으로 단광욱일장(単光旭日章) 및 1000엔을 하사받았으며, 1902년에는 같은 공적으로 600엔을 하사받았다. 1903년에는 북경 공사관 이등서기관으로 승진했다.

1905년 11월 특파전권대사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가 청국에 방문하자 정영방은 대사 수행원의 명령을 받았으며, 만주에 관한 청일조약 및 협정서 체결 과정에 수행했다. 담판 과정에 대해 『대지회고록』은 "협약 의정은 러일전쟁의 성과를 구체화한 중대한 것으로 미공표된 부분도 있으며 교섭 과정은 매우 미묘하였다"라고 평가했지만[112], 정영방은 1905년 11월 27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1개월 간의 협상을 통해 사안을 마무리 지었다. 1906년 4월 정영방은 일본 주영국대사관 이등서기에 임명되어 영국에서 재직하다가 1909년 일본으로 귀국하여 사다나루(貞愛) 친왕을 수행하여 광서제의 장례식에 참석하였다. 1910년에는 청 황족인 재순(載洵), 재도(載濤)의 일본 방문 시 접반원(接伴員)을 맡기도 했다.

1910년 일본에 있는 동안 정영방은 외무성의 명령을 받아, 사토 데츠지로(佐藤鐵治郎)의 저서 『원세개』의 평가를 맡기도 했다. 사토 데츠지로는 중국과 조선에서 30년 동안 거주했으며 그중 20년은 신문기자로서 살았다고 전해진다.[113] 사토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에 기초해 1909년에 한어로 『원세개』

---

112) 『對支回顧錄(하)』, p.38.

113) 竹內実, 「大正時期的中國形象及袁世凱之評價」, 陳志讓著, 守川正道譯, 『袁世凱與近代中國』, 岩波書店, 1980, p.325. 孔詳吉,村田雄二郎, 「大火焚燒後遺留的

를 집필했다. 그의 저서 『원세개』는 원세개와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에 이 책이 출판될 즈음에 일본 주중국공사였던 이주인은 『원세개』가 출판된다면 청일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간주했다. 이에 당시의 주천진 총영사 오바타 유키치(小幡酉吉)는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에게 『원세개』 원고를 보내기도 했다. 당시 오바타는 원세개의 가족이 나서서 인쇄된 책을 전부 구입해서 소각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114]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무성은 사토 데츠지로의 『원세개』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마침 일본에 있던 정영방에게 이 책을 평가하게 했던 것이었다.

정영방은 1910년 7월 5일 이 책에 대해 평가한 보고서를 외무성에게 제출했다. 정영방은 저자 사토가 원세개의 출신과 그의 정계 경력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으며 원세개에 대한 평가도 공평무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영방은 사토의 책이 원세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오늘날 한국의 국면이 이미 정해졌으니 그 당시의 실상을 되짚는 것은 우리나라(일본)에 있어 한 절의 역사일 뿐이다. 그러나 이 책은 청국 방면의 비밀에 대해 너무 상세하게 기재했다. 청국은 당시의 정책을 아직 비밀로 하고 공개하지 않았는데 만약 (청국의) 그 비밀을 일본인을 통해서 공개하면 청국 조야 사람들은 원씨가 술책을 부리고 있다고 의심할 것이다. 또한 이 책에서 원세개와 서태후의 관계, 원세개와 섭정왕과의 관계, 원세개의 외교수단 그리고 원세개가 의화단을 진압한 공적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서술하여 의심을 증폭시킨다. 이 책은 원씨에게 이해(利害)가 엇갈린다. 상기의 각 점을 약간 고친다면 원씨의 후환이 줄어들어 저자의 본래 뜻에도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115]

珍貴史料－－評佐藤鐵治郎的『袁世凱』」, 『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 2005(07)에서 재인용

114) 小幡酉吉, 「袁世凱ト題スル著作物一部進達ノ件」, 外務省外交史料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B03050612100

115) 鄭永邦, 「佐藤某著『袁世凱』に関する私見」, 外務省外交史料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B0305061220

이처럼 오바타가 책을 소각하자고 주장하였지만 정영방은 사토가 묘사한 원세개를 인정하여 원세개에게 불리한 부분만 삭제해달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물론 일본 측에서는 정영방이 제시한 방법 대신, 결국 오바타가 제시한 대로 사토의 저서를 소각했다.[116] 그렇지만 당시 외무성이 정영방에게 『원세개』의 평가를 맡겼다는 점에서 당시 정영방이 일본 정부에 의해 믿을만한 '중국통(中國通)'으로 간주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1911년 정영방은 재차 북경공사관에 파견되었고, 1913년에는 주 북경 대사관 일등서기관으로 승진했지만 본인이 관직을 사임했다. 1913년 원세개가 중화민국 대통령이 되자 정영방은 중화민국정부에 초빙되어 한 달에 銀 600원의 급여[117]를 받고 원세개의 고문이 되었다. 이후 정영방은 병에 걸려서 1916년 8월 20일 55세를 일기로 도쿄에서 세상을 떠났다. 묘지는 우에노 야나카(上野谷中)에 있으며 그의 생전의 공훈에 따라 종5등위훈4등(従五位勳四等)을 수여 받았다.

한편 『대지회고록』에서는 "정영방이 북경에서 근대의 명저라고 불리는 『홍루몽(紅楼夢)』의 강연을 했을 때 강연을 보러 간 사람들이 대청에 꽉 찼다"고 언급하며, 그의 한어 실력이 상당했음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한어 실력은 정영방이 주북경 공사관에서 부통변견습(附通辯見習)시기였던 1881년에 오계태(吳啟太)와 함께 북경어 교재 『관화지남(官話指南)』을 펴낸 것[118]에서도 엿볼 수 있다. 王灃華에 따르면 『관화지남』은 그 당시 청국공사관 통역자 오계태, 정영방을 중심으로 중국 문인 황유수(黃裕寿) 김국박(金国璞)의 지도에 따라 부통변견습 시기에 학습한 글과 일상생활을 결합하여 만들어진 책이었다.[119]

---

116) 『원세개』가 완전히 소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05년 天津古籍出版社는 다시 『원세개』를 출판했다.

117) 「支那傭聘本邦人人名表 大正3年12月現在」, 外務省外交史料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B02130228400

118) 黃忠敏, 「官話指南及金璋英譯本」, 上海師範大學對外漢語學院(석사학위논문), 2014.04, p.15.

119) 王灃華, 「日編漢語讀本『官話指南』的取材與編排」, 『上海師範大學學報』, 2006.03.

1871년「청일수호조규」체결 이래 청일 관계가 진전되면서, 일본은 청국과 외교할 수 있는 인재를 절실히 필요로 했다. 나가사키 당통사들은 본래 남경어를 표준어로 사용했지만, 당시 청국에서 표준어로 사용되었던 것은 북경관화였다. 따라서 일본 정부에서는 북경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한어학소(漢語学所)도 개설하였고『관화지남』도 이런 상황에서 편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관화지남』은 일본인이 처음으로 편찬한 북경관화 회화교재이기도 했다. 메이지시대『관화지남』은 북경어 학습자들의 필독서가 되었고 다이쇼시대를 거쳐 쇼와 20년(1945년) 11월 45판까지 출판될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 게다가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되어, 구미인들도 애용하는 북경관화 교과서가 되었다.[120]

이러한 정영방의 일생에 대해,『대지회고록』은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 정영방은 대부분의 시간을 북경에서 보냈으며 공무 외에 아무런 취미에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정영방은 30여 년 매일 일기를 쓰면서 "만약에 내가 55세까지 살 수 있다면 관직을 그만두고 자유로운 입장이 되어 이 일기에 근거하여 외교 실제 경험사(実歴史)를 작성하여 일청(日清) 간의 참고자료를 만들겠다.[121]

이와 같이 정영방은 외교관뿐만 아니라 일본의 한어 교육영역에서도 중요

---

pp.66-72.

『관화지남』 전체는「應對須知」(인사, 문안, 방문 등 짧고 간단한 대화로 구성되어 서로 문답형식을 취한다),「官商吐屬」(40장으로 구성되어 임대, 장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부분은『관화지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使令通話」(20장으로 구성되어 주로 일상생활에서 주인과 종복의 대화, 손님을 면회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와「官話問答」(총 20장이며, 공시적인 대화로 구성되었다)4권으로 나누었으며, 대화의 형식으로 편집되어 북경관화의 구어 형태를 잘 보여줬다고 한다.

120) 黃忠敏(2014), p.13.

121)『對支那回顧錄(하)』, p.39.

한 역할을 하였다. 한어 교육자로서 정영방은 『관화지남』을 편집했는데, 그가 마침내 55세 때 병사하고 결국에 그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비록 정영방이 어떤 실제 경험사를 썼을지 알 수가 없으나, 그가 외교관으로서 재임하는 동안 일본 정부의 명령을 받들어 일본의 국익에 따라 충실하게 행동했다는 것은 명확하다. 상술한 내용들과 『대지회고록』의 평가에서 보이듯, 정영방은 그의 아버지 정영녕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외교관으로서의 직무에, 나아가 일본의 한어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맺음말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화예 외교관이었던 정영녕과 그 두 아들 정영창·정영방 세 사람의 활동에 대해 『대지회고록』을 위시한 다수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볼 수 있었다.

우선 1장에서는 정영녕의 외교관으로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그의 생애 만년에 일어났던 '매국문 사건'의 경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1절에서 살펴볼 수 있듯 정영녕은 1870년「청일수호조규」체결 예비 교섭부터 1871년 조규 체결, 1873년 2월 소에지마 사절단 수행, 1873년 6월 동치제 알현, 1874년 류큐 귀속 문제의 대응과 정보 전달 등에 관여하며 청일협상의 최일선에 서서 양국의 교섭을 매개했다. 이때 정영녕은 '鄭永寧'이라는 그의 중국식 이름과 유창한 한어 실력을 토대로 청 측 관료들과 친분을 쌓으며 양국간의 교섭을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다. 이렇듯 정영녕은 중국 혈통을 보유한 일본인이라는 '경계인'적인 신분을 통해 청일간의 교섭에서 일본의 입장을 최대한 관철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1890년대 청일간의 관계에 긴장감이 감돌면서 정영녕의 이러한 '경계인'적인 신분은 그의 신변을 위협하는 요소로 돌변했다. 당시 일본 사회에서 정영녕의 '경계인'적인 신분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일본사회의 경계심은 2절에서 상술한 '매국문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정영녕이 언론에 의해 매국노로 매도된 모습을 통해 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렇지만 본고의 고찰로 드러났듯 정영녕에게 제기된 매국문 관련 혐의는 사실무근이라는 점에서 정영녕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입장에 선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장에서는 정영녕의 장남 정영창의 활동과 관련해 외교관으로서의 활동과 염운 사업가로서의 활동이라는 두 가지 면모를 위주로 서술했다. 1절에서는 정영창이 주천진 영사를 역임하던 시기 일본 외무성의 요구에 따

라 천진 조계지 부지 선정 및 천진 조계지 설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사실상 통역관에 가까웠던 부친 정영녕에 비해 정영창은 일본 정부의 외교관으로 진일보한 것이었다. 2절에서는 외교관 퇴임 이후 정영창이 추진했던 해북염운회사 및 한국염운회사 경영 과정을 통해 염운사업가로서의 정영창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한편 본고에서 살펴보았듯 정영창의 염운회사 설립 과정 및 식염 수입을 위한 청 정부와의 교섭 과정에서, 정영창과 일본정부 요인들과의 긴밀한 교류가 이뤄진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본 장에서는 정영창이 외교관 퇴임 이후 신속하게 식염 무역상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정영창이 일본 정부에 충실한 외교관이었다는 배경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3장에서는 정영녕의 차남인 정영방의 생애에 대해 서술했다. 본 장을 통해서는 정영방이 주북경공사관에서 30년간 재임하는 동안 맡았던 여러 외교사무에 대한 단편적인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사료상의 한계로 인해 정영방의 외교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했던 시점에 조선으로 파견된 정영방이 원세개와 접촉해 일본의 입장들 중 하나를 제시했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청일 양국이 조선출병과 관련해 상호간의 의중을 살피는 과정에서 정영방이 청 측으로 하여금 일본의 의도를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았던 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외교관으로서의 면모 뿐만 아니라, 정영방이 일본의 첫 북경관화 교재인 『관화지남』을 편찬했던 점 등과 연관지어 살펴본다면, 정영방 또한 그의 부친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국익에 충실했던 외교관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고를 통해서는 비록 정씨 부자가 중국 혈통을 보유한 일본인 즉 청일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들의 정치적인 입장은 시종일관 일본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였으며 그들은 철저히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정씨 부자의 '경계인'적인 신분과 관련해 정영녕의 사례에서 이러한 '경계인'적인 신분이 부각된 사례들을 본고에서 제시하기는 했지만 현존하는 사료의 부족으로 인해 정영녕

의 아들 세대에서 그들의 '경계인'적인 신분이 부각된 사례를 적절하게 제시하지 못했던 점은 미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청일 양국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우선 정영녕이 외교관으로 활동하던 1870~80년대 청일 양국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 확실한 우위를 점했다고 간주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정영녕은 자신의 '경계인'으로서의 신분을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도 활용할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정영녕의 다음 세대인 정영창과 정영방은 청일전쟁 이후 천진에서 영사로 취임한 정영창은 승리국의 외교관이라는 고지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친 정영녕처럼 굳이 본인이 '정지룡의 후예'라고 자칭하여 호감을 살 필요가 없었을 가능성을 제시해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료의 발견을 기대하며, 추후의 연구 과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사료

『高島易占第5編』, 横浜:望欣台, 明治18-21.

『大審院判決録: 民事・刑事. 明治25年自9月至10月, 同年自11月至12月』, 中央大學, 1912

『對支回顧錄』, 東亞同文會編, 原書房, 1968.

『新聞集成明治編年史』, 新聞集成明治編年史編纂会, 林泉社, 1936-1940.

『李鴻章全集(31)』, 国家清史编纂委员会, 安徽教育出版社, 2007

『日本外交文書』, 外務省調査部編, 日本国際協会, 1938-1940.

『在支帝国専管居留地関係雑件／天津之部』, 外務省外交史料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B12082544800.

『清季中日韓關係史料』,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2.

「国賊弁護(2)—鄭永寧事件—」,『大阪毎日新聞(朝刊)』, 1918.04.27.

「権大書記官鄭永寧免官ノ件」, 太政官,明治14年.https://www.digital.archives.go.jp/item/3650182

「柳原鄭両書記官清国総理衙門官員ト応接書」, 国立公文書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A03030996800

「鄭某悖行一件」,「鄭某賣國亂臣の始末」,「日本新聞の辯護人」,『朝日新聞』, 明治24年3月13日(1899號).

「鄭永寧より燕搓日録献納の件」, 防衛省防衛研究所,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C06021750500

「支那傭聘本邦人人名表大正3年12月現在」, 外務省外交史料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B02130228400

「清国天津駐在被命タル二等領事鄭永昌へ御委任状御下付ノ件」, 国立公文

書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A04010021900
小幡酉吉,「袁世凱ト題スル著作物一部進達ノ件」, 外務省外交史料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B03050612100
鄭永邦,「佐藤某著『袁世凱』に関する私見」, 外務省外交史料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B0305061220
鄭永昌, 「天津領事館報告(明治33年9月8日～明治33年10月1日)」, 外務省外交史料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B11100055700

2. 단행본

吳汝綸,『桐城吳先生日記(上)』, 河北教育出版社, 1999.
王文韶,『王文韶日記』, 袁英光・胡逢祥整理, 中華書局, 1989.
劉鶚著, 劉德隆編,『抱殘守缺齋日記(乙巳日記)』, 中西書局, 2018.
劉蕙孫,『鐵云先生年譜長編』, 齊魯書社, 1982.
李鬥石,『閩籍唐通事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9.
佐藤鐵治郎, 李寧・盧浩文譯, 『外國人眼中的中國人:袁世凱』, 東方出版社, 2013.12.
平井洋,『維新への澪標--通詞平井希昌の生涯』, 新人物往来社, 1997.

3. 연구논문

[한국어 논문]

강문호,「東學農民革命과 袁世凱」, 『동학연구(18)』, 2005. pp.19-50.

[중국어 논문]

高芳,「唐通事與日本近代漢語教育」,『東亞漢學研究(2)』, 2012. pp.143-155.
孔詳吉,村田雄二郎, 「大火焚燒後遺留的珍貴史料－－評佐藤鐵治郎的『袁世

凱』」,『福建論壇人文社會科學版』, 2005(07).
靳佳萍・萬魯建, 「試論鄭永昌與天津日租界的設立與經營--基於日本外交檔案的考察」,『歷史教學747』, 2016. pp.54-59.
茅海建・鄭匡民, 「日本政府對于戊戌變法的觀察與反應」, 『歷史研究』, 2004.03.
吳振清,「劉鶚致禍原因考辯」, 南開學報, 2001.01.30. pp.91-96.
王寶平, 「近代中國日語翻譯之濫觴－－東文學堂考」, 『日語學習與研究』, 2014(2).
王灃華, 「日編漢語讀本『官話指南』的取材與編排」, 『上海師範大學學報』, 2006.03. pp.66-72.
劉素芬,「晚清條約體制下的鹽務交涉與中韓貿易」,『地域文化研究』, 2018.02. pp.20-38.
劉素芬, 「劉鶚罹禍原因再探」, 『揚州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2018.05. pp.80-92.
李斗石・王慧杰, 「幕末至明治初唐通事對日本外交翻譯的貢獻」, 『集美大學學報(哲社版)』, 2018.01, pp.108-114.
張利民,「劃定天津日日租界的中日交涉」,『歷史檔案』, 2004.01. pp.74-80.
陳貴宗, 「甲午戰爭爆發前中日各自決定派兵赴朝的原因」,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1994(01). pp.73-79.
許海華,「舊長崎唐通事與近代日本對華交涉」,『浙江外國語學院學報』, 2015. 02, pp.91-97.
許海華,「論鄭永寧與近代中日關係」,『日語學習與研究』, 2019(2).
黃忠敏, 「官話指南及金璋英譯本」, 上海師範大學對外漢語學院(석사학위논문), 2014.04, p15.

[일본어 논문]

岡本真希子, 「越境する唐通事の後裔・鉅鹿家の軌跡—対外戦争と植民地統治のなかの通訳—」,『青山史学(38)』, 2020.03.16., pp73-85.

高橋裕子,「旧長崎唐通事が明治初期に果たした役割—マリア・ルス号事件を通じて—」, 杏林大学大学院国際協力研究科,『大学院論文集(13)』, 2016.03.

白春岩, 「1873年における清國皇帝への謁見問題--李鴻章と副島種臣との外交交渉--」,『ソシオサイエンス(16)』, 2010.03. pp.49-64.

沈丁心,「明治維新期における唐通事の歴史的役割」, 北京外國語大學(日語語言文化碩士學位論文), 2015.04.02.

六角恒広,「唐通事と唐話教育」,『早稲田商学(292)』, 1981.12. pp.455-477.

六角恒広, 「潁川重寛--唐通事から漢語教師へ」, 『漢語師家伝』, 東方書店, 1999, pp.1-48.

張天恩, 「江華島事件をめぐる交渉日清--清末外交の二重性をめぐって--」,『ソシオサイエンス(25)』, 2019.03, pp.31-50.

中嶋幹起,「唐通事の担った初期中国語教育-南京官話から北京官話へ」,『東京外国語大学史-独立百周年(建学百二十六年)記念』, 1999. pp.855-911.

中下正治,「国聞報と鄭永昌領事(日中関係史-2-)」,『季刊現代中國』, 1973.03. pp.4-16.

許海華, 「幕末における長崎唐通事の体制」,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5), 2012.02. pp.267-280.

許海華, 「長崎唐通事何禮之の英語習得」, 『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紀要(44)』, 2011.04, pp.297-318.

[부록]

명예훼손, 손해, 배상, 미래의 손해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즉 이미 손해가 생겼다고 본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명예회복을 위해 신문지 광고료를 청구할 때에는 광고의 당부(當否)를 판결하고, 만약 이를 합당하다고 볼 때는 광고비용의 금액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배상의 의무가 있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후일의 지불 즉 미래의 손해라고 하고 거절할 수 없다.

비훼(誹毁) 사건 공소에 부대(附帶)하는 사소(私訴)의 건
明治 25년 형(刑) 제553호 明治 25년 9월 29일 선고

원재판소 도쿄 항소원(控訴院)
상고인: 정영녕(鄭永寧)
소송 대리인: 모리야 고노스케(守屋此助)
피상고인: 마쓰노 신지로(松野新次郎), 나카무라 루키치(中村留吉)
소송 대리인: 이모토 조지(井本常治), 미야기 고조(宮城浩藏)

위 당사자 간의 명예 훼손 사건 공소에 부대하는 사소(私訴)의 항소에 대하여, 메이지 25년 3월 12일 도쿄 항소원에서 심리한 끝에 본건 항소인이 청구하는 것은 후일 지불하고자 하려는 광고의 비용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손해로서 현재 발생한 것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항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범죄로부터 발생할 직접적인 손해라고 해도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사소(私訴)로써 이것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인의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정영녕은 위 재판을 부당하다고 보고 상고했다. 그 요지는 원판결에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신문 광고료는 아직 지불하지 않았기에 청구권이 없다는 판결 요지를 내려 상고인의 청구를 거절한 것은 민사소송법에 소위 법률에 위배되어 사실을 확정하는 불법의 재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재판 전부 파훼(破毁)를 요구한다고 한다.

피상고인(對手人) 마쓰노 신지로(松野新次郎) 외 1명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심원(大審院)에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정해진 절차(定式)를 이행한 바 상고 대리인 모리야 고노스케(守屋此助)는 상고의 취지를 부연하고, 또한 원재판에서 상고인이 피고 등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상고인의 청구를 거절하는 데 신문광고는 명예회복의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라면 맥락을 관통할 수도 없어서, 단순히 신문광고료는 아직 지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다고 판정한 것은 사실 이유의 불비이다. 또 메이지 22년 민(民) 제5호 상고사건에 관하여, 본원의 판결례도 있으므로 겸하여 원재판은 파기를 요구한다고 논변하고, 피상고 대리인 이모토 조지, 미야기 고조는 상고논지를 논박하고, 원재판이 지당하다고 사정을 말하고 변명하였다. 따라서 입회검사 이마이 간이치(今井艮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판결한 것이 아래와 같다.

형법 부칙 제59조에 따르면, 사람의 명예에 관한 손해 등등은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적어도 그 손해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바로잡는 방법을 허락해야 한다. 그리고 명예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그 명예의 훼손이 있었다는 것은 곧 손해가 있다고 본다. 원판결은 상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손해는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그것을 바로잡는 방법인 광고의 당부(當否)를 판결하고 만일 이를 합당하다고 볼 때는 광고비용은 가령 금액이 정해지지 않을 때라고 하더라도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 비용의 부담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광고를 합당하

다고 한 판결의 요지를 관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이 비용은 후일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미래의 손해라고 하여 청구를 거절한 것은, 필경 형법 부칙 제59조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상고인이 청구하는 지지신보(時事新報) 외 19종의 신문에 광고 게재의 당부(當否)는 사실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더욱 이 점에 있어서 실로 재판소의 판결을 요하는 것으로 한다. 요컨대 마쓰노 신지로(松野新次郎)에 대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상고는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나카무라 루키치(中村留吉)에 대한 원판결은 본건 범죄의 가담자가 아니라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한 것이므로 상고 논지는 이에 적용할 수 없고 원판결은 합당하다고 본다.

위와 같은 이유로 나카무라 루키치와 관련된 판결에 대한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28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마쓰노 신지로(松野新次郎)와 관련된 판결은 동법 제286조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미야기(宮城) 항소원 민사부로 이관한다.

나카무라 루키치에 대한 상고와 관련된 소송비용은 상고인이 부담해야 한다.

日文要旨

明治時代華裔外交官の活動と政治的立場

― 鄭永寧・鄭永昌・鄭永邦三父子を中心に ―

宗 晶晶
東洋史学科
ソウル大学 大学院

明治時代(1868-1912)の在日華裔に関する従来の研究では、華裔外交官の活動はそれほど注目されていなかった。しかし、明治時代初期の鄭永寧、平井希昌や、江戸時代に唐通事を務めた華裔外交官らが日本の対清外交において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たことがわかった。彼らは中国人の血統を持つ日本人であるという「境界人」としての身分をもとに、順調に外交官になることができた。本稿では、これまで注目されなかった明治時代の華裔出身の外交官のうち、最も旺盛に活動したと評価される鄭永寧と彼の二人の息子、鄭永昌と鄭永邦の活動及び彼らの政治的立場について考察した。

まず、本稿では、鄭永寧の外交官としての活動をまとめ、彼の晩年に起きた「売国文事件」について調べた。鄭永寧は「日清修好条規」締結の予備交渉から条規締結、副島使節団の随行、同治帝謁見、琉球帰属問題への対応や情報伝達などに関与し、日清交渉の第一線に立って両国の交渉を媒介した。当時、鄭永寧は中国血統を持つ日本人という「境界人」の身分をもとに日清間の交渉において日本の立場を最大限に貫徹させることができた。しかし、1890年代になると日清間の関係に緊張感が漂い、鄭永寧の「境界人」的な身分は、彼の身辺を脅かす

要素へと急変した。当時の日本社会は鄭永寧の「境界人」的な身分に問題を提起し始めたのだ。このような日本社会の警戒心は、いわゆる「売国文事件」が進む過程において鄭永寧が言論から売国奴として罵倒されたことからも明らかである。しかしながら、鄭永寧に着せられた売国文関連疑惑は事実無根だったということがわかっており、鄭永寧はあくまでも日本側の立場に立っていた人物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

次は、鄭永寧の長男、鄭永昌の活動と関連して、外交官としての活動と塩運事業家としての活動という二つの側面を中心に叙述した。鄭永昌は、駐天津領事を務めていた頃、日本外務省の要求に従って天津租界地の敷地選定や天津租界地の設立のための主導的な役割を果たした。事実上の通訳に近かった父の鄭永寧に比べ、鄭永昌は日本政府の外交官として格上がりしたのだ。鄭永昌は外交官を退任後、海北塩運会社と韓国塩運会社を経営する塩運事業家へと変貌した。一方、本稿では、鄭永昌の塩運会社設立の過程や食塩輸入のための清政府との交渉過程において、鄭永昌と日本政府要人との緊密な交流があった状況を多数把握することができた。これらの状況を考慮すれば、鄭永昌が外交官を退任後、速やかに食塩貿易商へと変貌することができた理由として、鄭永昌が日本政府に忠実な外交官だったという背景があったと判断することができる。

最後に、鄭永寧の次男、鄭永邦については、駐北京公使館での30年間の在任中に担当した多数の外交事務に関する断片的な情報を得ることができたが、史料上の限界があったため、鄭永邦の外交活動を包括的に示すことは困難だった。しかしながら、1894年に東学農民運動が勃発した時点で朝鮮に派遣された鄭永邦が袁世凱と接触して、日本の立場の一つを提示した事例を具体的に考察することによって、日清両国が朝鮮出兵と関連して相互の意中を探る過程において鄭永邦が清に日本の意図を把握できる選択肢を提供する役割を担ったことがわかった。このような外交官としての面貌だけではなく、鄭永邦が日本初の北京官話教材である『官話指南』を編纂した点などを踏まえれば、鄭永邦も彼の父と同じように日本の国益に忠実な外交官であったと思われる。

結論として本稿は、たとえ鄭氏父子が中国人の血統を持つ日本人、即ち、日

清両国の間に存在する「境界人」の身分であったとしても、彼らの政治的な立場は終始一貫して日本政府の立場と一致しており、彼らは日本の国益に徹した活動をしたと判断することができる。

Keywords: 鄭永寧, 鄭永昌, 鄭永邦, 唐通事, 華商, 華人, 外交官, 売国文事件, 境界人

Student Number **: 2017－23020**